



영국
장애 예술
자료집

**주한영국문화원은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장애 예술 사업을 되짚어 보고,
향후 한영 장애 예술가/예술 전문가 간의 교류 및 협력 확장, 장애 예술에 대한 이해 증진,
장애인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양국 간 대화 촉진을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7명 중 1명 정도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 명에 해당합니다.
놀라운 수치이지만, 숫자는 장애를 가진 인구에 대한 단편적 정보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정서적, 발달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하나 이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신경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장애는 개인 정체성의 한 측면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신념 등과 같이 개개인이 가진 하나의 특성일 뿐이며, 장애가 한 개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이 갖는 자유와 권리, 그리고 사회 내의 지위는 그들이 사는 장소뿐만 아니라 정치적 맥락, 그들 삶의 근간을 형성하는 법적,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좋지 않은 사회 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노동 인구에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세계 경제에 생기는 손실은 이제야 측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은 지속적으로 정치, 공공, 문화 영역에서 과소평가를 받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영국의 문화 관계 및 교육 기회를 위한 국제기구인 영국문화원은 1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에서 활동하며,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긍정적인 문화, 교육,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영국문화원의 조직 문화를 더욱 포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으며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화교류 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의 포용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문화원 CEO 키아란 디반(Ciarán Devane)

주한영국문화원 예술 프로그램

2015년부터 진행된 주한영국문화원의 예술 프로그램은 '포용성'과 '혁신'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장애인 예술, 노인들과 함께하는 예술 활동, 기술과 예술을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컨퍼런스, 탐방 프로그램, 초청 공연을 개최하여 한·영 예술가와 전문가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출판물 발간을 통해 영국의 장애 예술, 참여적 예술 활동, 실감 기술과 예술을 소개했다.

장애 예술 프로젝트

주한영국문화원은 2015년 한·영 무용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영국의 장애 안무/무용가 마크 브루를 초청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무용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한국의 무용 전문가 및 안무가들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2015년 마크 브루와 안무가 김보라의 만남은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공동 안무 신작 제작으로 결실을 맺었다.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의 마지막 행사로 진행된 <페스티벌 아름다름>에서는 마크 브루와 김보라의 신작 <공공Zero>, 안은미 안무가와 칸두코 무용단의 신작 <굿모닝 에브리바디>, 장애 무용 사진전 <춤을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를 국내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와 동시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예술가 리더십 프로그램인 싱크 코리아(Sync Korea)를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의 협력은 이음 해외 초청 쇼케이스: 영국, 영국 장애 예술 탐방, 영국 공연 작품 온라인 스트리밍, 장애인의 예술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한 온라인 세미나로 이어져, 한국과 영국의 장애 예술가 및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

목 차

한눈에 보는 영국 장애 예술 발전사	05	쇼케이스 및 아티스트 토크	23
		2019년 영국 장애 예술 쇼케이스	
영국 장애 예술 타임라인	07	초청 작품 및 예술가	
		- 하이징스 극단 <프레드>와 클레어 윌리엄스 인터뷰	
한영 장애 예술 교류의 시작	08	- 조 배넌 <시선>과 존 배넌 인터뷰	
언리미티드 프로듀서 조 베런트 방문		- 댄 도우 <조건>과 댄 도우, 그레함 에이디 인터뷰	
조 베런트			
언리미티드	09	전시	40
언리미티드의 탄생		춤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방문단		미디어 커버리지	42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참관기 - 김원영		페스티벌 아름다움	
		영국 장애 예술 쇼케이스	
한·영 무용 교류	14	기고	47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 댄스 익스체인지		영국의 장애 예술을 만나다 - 김지수	
장애·비장애 통합 무용 워크숍		발견의 순간, 순간의 발견 - 이연주	
마크 브루			
컨퍼런스	16	설문	53
2016년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관계자들의 한마디	55
공동 제작	18	영국의 장애 예술 관련 기관 / 단체 / 예술가	57
평창 문화올림픽 계기 <페스티벌 아름다움: 아름다운 다름>			
칸두코 무용단 X 안은미		부록	
마크 브루 X 김보라		예술 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63
장애인 예술가 리더십 프로그램	20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체크리스트	72
싱크			
싱크 코리아			

한눈에 보는 영국 장애 예술 발전사

초창기 영국의 장애인 예술이 건강이나 치료가 목적인 예술 활동과 예술 치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970년대부터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점차 장애인들도 창작자로서 혹은 예술 지도자로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1977년에 셰이프 아트(Shape Arts), 1980년에는 그레이아아이 극단(Graeae Theatre Company), 1987년에는 하트 앤 소울(Heart n Soul), 1991년에는 칸두코 무용단(Candoco Dance Company)이 설립되었다.

장애 예술인들의 초기 작품들은 대부분 장애인이 예술인으로서, 참여자로서, 그리고 관객으로서 평등할 권리를 요구하는 사회운동과 연관이 깊다. 1995년에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에 따라 극장과 미술관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었다. 현재 시행 중인 영국 평등법 2010(Equalities Act)은 장애인 평등 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법률의 제정으로 장애 예술이 여러 방면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공연이나 행사에서 수어 통역이 일반화 되었으며, 공연에 자막을 도입하여 더 많은 장애인 관객을 유치할 수 있었다. 오디오 가이드와 촉각 투어가 도입 되어 시각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성도 높아졌다. 관객의 다양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관람 환경 조성으로 장애인 관객의 선택 폭은 넓어졌으며,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토니 히튼(Tony Heaton)이 두 개의 휠체어로 제작한 영국 지도 모양의 조형물 <휠체어에서 본 영국>(Great Britain from a Wheelchair), 학습장애 연기자 제즈 콜본(Jez Colborne)과 케빈 프링글(Kevin Pringle)이 출연하고 마인 더 갭(Mind the Gap)이 재구성한 고전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 칸두코 무용단이 발굴한 하반신이 없는 장애인 무용수 데이비드 톨(David Toole), 탄야 라아비(Tanya Raabee)의 <후즈후>(who'S whO?) 초상화 컬렉션 등 많은 예술 작품들과 예술인이 문화 아이콘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2012 런던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유치 경합 당시, 런던시는 장애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에 포함했다. 2012 런던올림픽 전후로 진행된 런던 문화 올림피아드는 영국의 뛰어난 문화적 성취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통합을 시도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12년 이후 지속된 영국 정부의 장애 예술 지원은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성을 증진하고 우수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영국 장애 예술의 역동적인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장애 예술가들이 다양한 예술 분야와 층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높은 예술적 성취를 인정 받고 있다. 여전히 영국 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의 대표성, 주도성, 교차성, 권리 등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주류 예술계와의 교류와 협력도 확장되고 있다.

“It’s not the sole responsibility of people facing systemic oppression to demand change. It’s a responsibility we all share...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of creative thinkers, we have to find ways to address the challenges and dismantle the barriers and connect people across borders.”

Jess Thom (Touretteshero)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억압에 직면한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국제 공동체로서 우리는 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장벽을 허물고,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스 톰 (뚜렛히어로, 영국 코미디언/연극인)

영국 장애 예술 타임라인 (주요 사건들)

- 1977** - 셰이프 아트(Shape Arts) 설립. 런던 및 영국 전역의 학교, 교도소, 예술 센터에서 예술가들과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잇는 프로젝트를 진행
- 1980** - 장애인들이 전문 배우로서 일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레이아아 극단(Graeae Theatre Company) 설립
- 1981** - 장애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이 이끄는 아트라인(Artslines) 설립
최초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 극단인 패스 프로덕션(Path Productions) 설립
- 1982** - 장애 배우들과 신체극을 제작하는 스트라트코나 극단(Strathcona Theatre Company) 설립
- 1986** - <장애-우리의 예술, 우리의 문화>(Disability - Our Arts, Our Culture) 컨퍼런스에 이어 장애인들이 이끄는 런던 장애 예술 포럼(LDAF, London Disability Arts Forum) 설립
커먼 그라운드 수어 무용단(Common Ground Sign Dance Theatre) 설립
런던 장애 예술 잡지(Disability Arts in London) 1호 발행
- 1987** - 학습/발달 장애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 단체 하트 앤 소울(Heart n Soul) 설립
- 1988** - 맨체스터 장애 예술 컨퍼런스 개최
- 1989** - 맨체스터에서 뉴 브리드 극단(New Breed Theatre Company) 설립하고 장애인들의 삶을 토대로 한 실험극 제작
- 1991** - 칸두코 무용단(Candoco Dance Company) 설립
장애 예술 매거진 1호 발행
- 1993** - 런던 장애 예술 포럼(LDAF)의 첫 번째 전시 <하우 위 라이크 잇>(How We Like It) 개최
- 1997** - 맨체스터에서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독립 페스티벌 개최
- 2001** - 노스웨스트 장애 예술 포럼(North West Disability Arts Forum)의 주최로 제1회 다다페스트(DaDaFest) 개최.
- 2002** - 에든버러 페스티벌 내 장애 예술을 보여주는 디제너레이트(Degenerate) 페스티벌 개최
- 2007** - 포츠머스 대학의 주최로 장애 예술인들이 만든 대형 공공 예술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 설치
- 2008** - 194개의 예술 기관에 대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예산 삭감
내셔널 장애 예술 포럼(NDAF)과 런던 장애 예술 포럼(LDAF)은 지원 예산 전부 삭감
- 2010** - 다다페스트(DaDaFest) 10주년을 맞아 '호기심과 욕망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의 정체성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장애인들의 위치를 탐구
- 2011** - 2012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셰이프 아트(Shape Arts)에서 29개의 언리미티드 제작 지원 작품 발표
- 2012** -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첫 번째 언리미티드 페스티벌(Unlimited Festival) 개최
- 2015** - 문화유산 복권기금,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조셉 로트리 재단에서 장애 예술 운동을 유산으로 지키기 위해 국립 장애 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에 백만 파운드의 기금 수여
- 2016** - 언리미티드 인터내셔널(Unlimited International)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일본, 호주, 브라질에 장애 예술 작품 투어
- 2018** - 런던 시청에서 국립 장애 예술 컬렉션(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의 첫 번째 전시 개최

한·영 장애 예술 교류의 시작

언리미티드(Unlimited) 프로듀서 조 베런트(Jo Verrent) 방문

조 베런트는 2015년 처음 한국을 방문하여 언리미티드를 한국에 소개하고 이어 2016년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및 2018년 한영 교류의 해 프로그램 싱크 코리아(Sync Korea)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간담회 및 토크를 통해 주류 문화의 장애 예술 포용, 장애 예술가와 관객을 위한 접근성 증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언리미티드의 목표와 언리미티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조 베런트

조 베런트 언리미티드 시니어 프로듀서는 '다름'을 이질감이 아닌 '풍미를 더함'이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다양성이 질감을 더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각종 예술 정책을 실체화하고 있다. 코스모폴리탄지 올해의 여성상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북부 자문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16년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 주한영국문화원

언리미티드 (Unlimited)

언리미티드의 탄생

영국 장애 예술은 2000년대 후반 장애인 예술 단체 및 장애 예술 관련 포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존재가 주변부로 사라져가는 위기의 시기를 맞는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던 이 시기에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장애 예술가가 주도하는 실험적 예술 작품을 만드는 데 직접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약 2백만 파운드의 기금이 만들어졌으며, 언리미티드는 이를 계기로 발의된 프로그램이다.

셰이프 아트(Shape Arts)와 아트어드민(Artssadmin)이 운영을 맡고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웨일스 예술위원회, 사우스뱅크 센터, 영국문화원 등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올림픽 이후 다시 180만 파운드의 기금을 조성하여 언리미티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언리미티드는 2013년부터 총 4백만 파운드의 재정적 지원을 280여 명의 장애 예술가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원금액이다.

언리미티드는 장애 예술가 신작 제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극, 무용, 음악, 문학, 공연, 미술, 조각, 공공미술, 사진, 디지털 공예, 설치미술,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진행하는 장애 예술가 및 단체들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장애 예술가들이 새롭고 획기적이며 높은 수준의 작품을 창작하고 선보일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또한, 예술계에서 장애 예술이 주요 영역으로 자리 잡고, 비장애 예술가들과 관객들이 장애 예술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언리미티드는 예술가를 중심에 두고 예술가의 아이디어와 재능이 작품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능 있는 예술가들에게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언리미티드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Sue Austin, Sue in the Blue. Photo by Norman Lomax.

Unlimited Festival Poster 2014. Photo: Manuel Vason.

2 – 7 SEPTEMBER 2014



EXTRAORDINARY NEW WORK BY DISABLED ARTISTS

UNLIMITED



Supported using public funding by
**ARTS COUNCIL
ENGLAND**

**SOUTHBANK
CENTRE**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Unlimited Festival)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은 2012년 런던 문화올림픽의 주요 행사로 당시 11일 동안 영국의 장애 예술 작품 및 언리미티드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런던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사우스뱅크 센터에서 열리는 장애 예술 축제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런던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되어 지금까지 많은 장애 예술가의 우수한 예술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장애 예술축제에 대한 세간의 편견을 깨고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냈다.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서는 무용, 연극, 시각예술, 소설, 설치, 디지털, 음악, 즉흥 예술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결과물 발표 등 다양한 장르의 쇼케이스와 심포지움 등을 2년마다 선보이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언리미티드 인터내셔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2012년에는 29개의 지원 제작 작품 중에 5개의 해외 작품을 지원했으며 2016년에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와 공동 투자를 통해 6개 국가와의 국제 협업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 열린 제4회 언리미티드 심포지움 및 페스티벌은 영국 전역의 장애 예술 관계자뿐 아니라 전 세계의 장애 예술가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장애 예술의 국제적인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방문단 (Unlimited Festival Delegation)

영국문화원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의 협력 기관으로 전 세계 장애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영국 장애 예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50명의 국제 방문단을 초청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의 장애 예술가 및 전문가들을 초청하였다.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참관기

영국 장애 예술가들과 접촉하다 - 서울에서 런던까지, 수평적 협력을 기대하며
김원영 (법학 및 예술 연구자, 변호사, 배우)

1. 2013년으로부터

최근 들어 한국과 영국의 장애 예술인들이 교류할 기회가 늘고 있다. 나와 내 동료들은 2013년 극단을 만들고, 장애 예술에 관한 사례를 찾기 위해 영국 그레이아이 극단을 (우연히 웹페이지에서) 발견하고 이메일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칸두코 컴퍼니의 내한공연 정도를 제외하면 그다지 정보가 없었지만, 그때 다양한 정체성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고, 접근 가능하며, 새로운 양식의 예술을 하고 싶다는 우리의 목표를 영국 장애 예술가들의 언어에서 발견하며 놀랐던 기억이 있다.

나는 2018년 9월 마침내 런던에서 진행된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 직접 참가할 기회를 가졌다. 발달 장애인, 성소수자, 청각 장애인, 여러 종류의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예술의 중심지인 런던 사우스뱅크 센터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양한 접근성 지원방안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모습을 보며 2013년의 나와 내 동료들이 떠올랐다. 여전히 영국 장애 예술 전반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나를 비롯해 한국의 젊은 장애 예술가들이 고민했던 주제와 관련하여 영국 장애 예술의 몇 가지 주요 특성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나는 그것을 다양성, 접근성, 수행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다양성(divers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행성(performativity)

1) 다양성(diversity)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이 열리기 1주일 전 런던 유니콘 극장에서는 장애 예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장애 예술가를 위한 이 축제에서 장애와 교차하는 수많은 정체성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영국 사회가 가지는 인종적 다양성은 물론, 성소수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사전 심포지움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었다. 평등을 다루는 섹션에서 주요한 주제는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이었으며, 실제 참가자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여성이자 장애아의 어머니, 뇌병변 장애가 있는 백인 남성, 게이이고 청각장애가 있는 남성까지 다양했다. 또한 장애 개념 자체가 넓게 정의되었다. 통합운동장애, 과잉행동 및 주의력 결핍, 색맹, 뇌전증, 난독증을 가진 이들이 스스로를 '장애가 있는(disabled)' 사람으로 정의했다.

페스티벌에서 열린 공연의 주체들도 한국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애인'보다 훨씬 더 다양했다. 난소종양으로 자궁을 제거한 캐서린 호프만(Catherine Hoffman)의 공연(종양을 진찰했던 산부인과 도구가 유머러스하게 표현된다), 목발을 이용해 춤을 추는 지체장애 여성 탄야(Tanja Erhart)와 영국의 비장애인 댄서 키티(Kitty Fedorec)가 스카이프를 연결되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다양한 정체성이 페스티벌에서 어떻게 교차하고 연결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 접근성(accessibility)

접근성은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의 가장 중요한 화두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휠체어 접근 및 수어 통역같이 한국에서도 익숙한 접근성 보장 이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음성 묘사(audio description), 학습/발달 장애(learning disability)가 있는 사람의 의사소통 기회를 높이는 말하기 가이드라인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접근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는 예들도 있었다. '잔디밭에 함께 앉을 권리'를 위해 줄리 클레브스(Julie Cleves)가 레고 블록처럼 생긴 판넬을 이용해 바닥에서 휠체어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보여준다. 판넬은 클레브스의 '접근성'을 위한 도구이지만 판넬의 무수한 조립 패턴, 클레브스의 몸과 판넬이 결합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퍼포먼스가 되었다.

심포지움에서 발표자들이 발표를 시작하기 전 보여주는 음성 묘사 역시 내게는 흥미로운 예술로 느껴졌다. 음성 묘사를 하는 사람들은 인종, 몸무게, 키, 액세서리 등 자신을 설명하는 요소들을 '선택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편집권'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표현하는 일이 자신의 역할임을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보여주는 장애 예술의 본질 그 자체와 닮아있다. 다만 질문이 남는다. 음성 묘사는 시각 장애인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묘사하는 사람의 '편집권'은 수용자에게 정보 제약을 남길 여지는 없는가?

3) 수행성(performativity)

예술에 있어 수행성이란 (특정한 의미를 담지한 작품이 관객들에게 읽히거나 재현되는 측면이 아닌) 하나의 '사건'으로서, 퍼포먼스로서 공통의 경험을 창출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현대 예술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행적 성격을 지니는 경향이 있기에¹⁾ 이를 영국의 장애 예술이 가진 특성만으로 꼽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언리미티드 페스티벌과 한국에서의 공연을 통해 만난 영국 장애 예술가들은 어떤 예술 분야보다 예술의 수행적 효과에 주목하는 듯이 보인다.

이는 장애 예술이 장애인의 감각과 신체, 장애인의 서사(narrative)를 예술의 수단으로 삼아 관객들과 더불어 특정한 공통 경험을 산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월 한국에서 열린 조 배넌(Jo Bannon)의 공연 <시선>(Exposure)은 바로 수행적 효과를 극대화한 공연이다. 검은색의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관객은

1:1로 예술가를 만난다. 이때 조 배넌은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지 않는다. 백색증을 가진 눈을 작은 조명으로 관객이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수자'의 몸을 정확하게, 그것도 개인적으로 바라볼 기회를 가진 적이 없을 것이다. 댄 도우(Dan Daw)는 <조건>(On One Condition)에서 그의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가 어떻게 수행적 효과를 발산하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양말을 신는 행위는 특정한 의미를 지시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어려움, 부당한 취급에 관한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다. 그것은 그저 장애를 가진 몸이 양말을 신는 사건을 보여주는, 자기 지시적 행위일 뿐이다.

수행성은 관객과 공통으로 특정한 사건을 창출하므로 관객의 역할, 관객의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서 나는 영국 각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온 관객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핀란드,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대만에서 온 장애 경험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사건들에 참여하고 싶은 이 신중하고 열정적인 관객들이 페스티벌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듯 보였다. 이처럼 영국 장애 예술과의 만남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것은, 매우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고, 이 모든 행위자가 접근 가능한 장소를 설계하며, 장애라는 경험에서 비롯된 예술 활동을 관객과 함께 하나의 '공동 사건'으로 창출하는 데 능숙하다는 점이었다.

3. 장애 예술의 전환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대하며

한국의 장애 예술가들도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영국 장애 예술가들과 달리, 한국의 예술가들은 한국이라는 지리적, 언어적 제한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영연방 전체는 물론, 영어라는 주류 언어를 통해 수평적으로 소수자들 간의 협력과 교류를 묶어내기 쉬운 영국과는 다른 조건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런데 장애 예술의 역사는 주류적인 언어, 문화양식, 장소, 제도로부터 탈주하려 노력하면서, 새로운 연대(solidarity)를 구축하고 스타일을 창출해온 작업이었음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비주류적' 언어권에 위치한 장애 예술가들과 영국의 장애 예술가들이 함께해야 할 작업과 목표는 분명해 보인다.

이들테면, 나는 언리미티드 페스티벌에서 많은 한국 예술가들의 공연을 만나기를 희망한다. 나는 한국의 뛰어나고 재능 있는 장애 예술가들을 더 많은 문화권에 소개하고 싶다. 또는 런던과 서울의 예술가들이 서로 교차하여 일정 기간 서로의 장소에 체류하며 작업하고, 아시아와 유럽으로 서로의 작업을 더 많이 소개하도록 촉진하는 협업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영국의 경험은 한국 장애 예술가들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이고, 지난 몇 년간 공연과 워크숍으로 영국의 예술가들이 한국을 다녀갔다. 이제는 한쪽이 다른 쪽에 경험을 전파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넘어서, 협동적인 창작 기회가 더 많기를 바란다. '장애 예술'이 가지는 힘은 바로 이 수평적 연대 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다. 장애라는 정체성은 수평적으로 지리와 문화, 언어를 가로지른다. 이렇게 우리의 예술은 더 다양해지고, 더 접근 가능해지며, 문화예술계 안에서 하나의 '사건'이 될 것이다. 2013년부터 꾸던 꿈이다.

- 1) 이 개념은 언어학자 오스틴에게서 왔다. 수행문은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행위로서의 효과를 가지는 문장을 일컫는다. 1960년 이후 서구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작품이 그 자체로 효과를 발산시키는 퍼포먼스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다고 보며, 이를 수행적 전환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관련 내용에 관하여는 에리카 피셔-리히테, 『수행성의 미학』, 문학과 지성사, 2017을 참조.

김원영은 법학 및 예술 연구자, 변호사, 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도서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을 출간하였다.

한·영 무용 교류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 댄스 익스체인지 (Dance Exchange)

2015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영국문화원은 한·영 무용 교류 사업을 진행하였고 영국 스코틀랜드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안무가/무용가인 마크 브루를 초청하여 향후 한국 예술가와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때 만난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김보라 안무가/무용가와의 인연은 2018년 평창문화올림픽을 기념하여 진행된 한영 공동 프로젝트 <공·硿Zero>의 공동 창작으로 이어졌다.

장애 · 비장애 통합 무용 워크숍

마크 브루는 한국에 처음 방문하였던 2015년 11월에 장애·비장애 무용수들이 함께하는 통합 무용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노경애 안무가와 공동으로 중증 신체장애인들과 새롭게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해 보는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7년 한국에 재방문하여 잠실창작스튜디오에서 작가들과 함께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마크 브루 (Marc Brew)

마크 브루는 2001년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무용단 마크 브루 컴퍼니(Marc Brew Company)를 이끌고 있는 안무가/무용가이다. 호주 출신으로 발레를 전공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발레단,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 극장 발레단, 뉴욕 인피니티 댄스 시어터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장애를 가진 무용수들과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 활동하는 칸두코 무용단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폐막식 깃발 전달식과 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의 공동 연출 및 객원 무용가로 활동했다. 2009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현대무용단인 스코틀랜드 국립 현대무용단의 협력연출가로도 활동하였다.



마크 브루 워크숍 © 주한영국문화원

"다름이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다름이 아닌 새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 김보라

"장애를 가졌을 때와 가지지 않았을 때를 모두 경험했다는 것이 제 장점입니다. 덕분에 장애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할 때 음악, 묘사, 이미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용수와 작업을 하든 도전을 장려하고, 동시에 제가 예술가로서 도움받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세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한가지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예술도 이를 꼭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크 브루

스코틀랜드의 장애 예술

스코틀랜드에는 캐롤린 보우디치(Caroline Bowditch), 마크 브루(Marc Brew), 클레어 커닝햄(Claire Cunningham), 라메쉬 메이야판(Ramesh Meyyappan), 로버트 소플리 게일(Robert Softley Gale)과 같은 국제적인 장애 예술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장애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전 세계 관객들을 대상으로 공연하고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지역 예술위원회인 크리에이티브 스코틀랜드(Creative Scotland)의 지원에 힘입어 장애 예술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청각 장애인 극단인 솔라 베어(Solar Bear)는 스코틀랜드 왕립예술원(Royal Conservatoire of Scotland)에 영국 최초 수어 공연 과정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극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Falling in love with Frida © Anthony Hopwood

컨퍼런스

2016년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영국문화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공동으로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한국과 영국의 예술 정책 및 장애 예술과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을 논의하였다.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국제 교류 디렉터인 닉 맥도웰(Nick McDowell),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문화다양성 디렉터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 언리미티드 시니어 프로듀서 조 베런트(Jo Verrent), 칸두코 무용단 공동예술감독 페드로 마차도(Pedro Machado), 테이트 익스체인지의 협력 예술가 앨리스 폭스(Alice Fox) 등이 연사로 초청되어 사례를 발표하고 공연 예술 및 시각 예술 분야에서의 정책 현황을 논의하였다. 또한 컨퍼런스에 이어 칸두코 무용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한·영 문화예술 컨퍼런스 © 주한영국문화원

칸두코 무용단 (Candoco Dance Company)

칸두코 무용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무용수로 이루어진 현대무용단으로 지난 28년간 세계 각국에서 혁신적인 공연을 통해 장애와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켜 왔다. 2006년 첫 내한한 바 있는 칸두코 댄스 컴퍼니는 2016년 12월 영국문화원의 초청으로 10년 만에 다시 내한하여 거대한 천을 이용한 앙상블로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안무가 알렉산더 휘틀리(Alexander Whitley)의 작품 <비헬드> (Beheld)와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편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환기하는 헤테인 파텔(Hetain Patel)의 작품 <렛츠 토크 어바웃 디스> (Let's Talk About Dis)를 더블빌(두 편 동시 공연)로 선보였다.



Beheld by Alexander Whitley © Hugo Glendinning

공동 제작

평창 문화올림픽 계기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

2018년 평창 문화올림픽의 일환이자 한·영 상호교류의 해 폐막 행사로 진행된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은 한국과 영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 예술가들의 신작 두 편을 공동제작하고 평창 문화올림픽 기간에 아르코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선보였다. 또한 <페스티벌 아름다름: 아름다운 다름>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저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인 킬루미노를 도입해 장애인 관객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도모했다.

칸두코 무용단 X 안은미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무용가 안은미와 영국의 장애/비장애 통합 현대무용단 칸두코 댄스 컴퍼니가 만나 약 6주간의 창작 워크숍을 통해 <굿모닝 에브리바디>를 탄생시켰다. 총 2회 공연 998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굿모닝 에브리바디 © 주한영국문화원

마크 브루 X 김보라

마크 브루와 김보라는 2015년 11월 한·영 무용 교류 프로그램으로 마크가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서로의 작업에 흥미를 갖게 된 것을 계기로 2017-18 한영 상호 교류의 해를 앞두고 공동작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체에 대한 생각, 의미, 탐색, 리서치 등을 통해 작품 주제를 함께 개발하고, 공동 안무로 <공·空Zero>를 창작하고 공연했다.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

2017-18 한영 상호교류의 해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창의적 미래(Creative Futures)'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변화와 혁신, 다양성과 통합, 창의 기업가 정신, 창의 교육'이라는 다섯 가지를 주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신진 예술가 육성과 새로운 관객 개발을 위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전시, 공연, 레지던시, 랩(LAB), 컨퍼런스, 워크숍, 디지털 콘텐츠 등의 형식으로 선보였다. 서울, 부산, 청주, 전주, 통영 등 전국 17개 도시, 184개의 행사에 120만여 명의 관객들이 참여하였으며 양국 간 지식 교류와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마련하였다.



공·空Zero © 주한영국문화원

장애인 예술가 리더십 프로그램

싱크 (Sync)

싱크(Sync)는 장애인 예술가 및 기획자를 대상으로 그룹 워크숍, 개인 멘토링, 코칭을 통해 참가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다. 장애를 지닌 예술가와 기획자는 사회적 편견과 제약을 극복하면서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처하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단체를 이끌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창작활동을 넘어 예술 단체를 운영하거나 여러 예술가와 협업하는 일은 예술과 장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소통 능력을 필요로 한다.

싱크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기점으로 획기적으로 성장하며 영국의 장애인 예술의 발전에 공헌해 온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이다. 장애 예술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영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호주에서도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과 함께했고 긍정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출처: 싱크(Sync) 웹사이트

싱크 코리아 (Sync Korea)

영국문화원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와 함께 2018년 3월 8명의 예술가 및 기획자들을 선발하여 싱크 코리아(Sync Korea)를 진행했다. 1주일간 진행된 리더십 워크숍은 진정한 리더십, 리더십의 형태, 리더십의 영향력과 힘, 탄력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1:1 집중 코칭 및 멘토링 등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스스로가 보유하고 있는 재능에 집중하여 본인에게 맞는 리더십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리더로서의 자질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코칭을 통해 국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 창의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영국식 코칭을 통해 지식 위주의 단편적인 시스템을 떠나 어느 정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 싱크코리아 참가자



싱크 코리아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센터



쇼케이스 및 아티스트 토크

2019년 영국 장애 예술 쇼케이스

주한영국문화원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공동 주최로 영국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2019년 1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음 해외 공연 쇼케이스: 영국'을 선보였다. 총 세 개의 공연과 아티스트 토크, 워크숍 등이 함께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영국의 장애 예술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쇼케이스에 초청된 장애/비장애 통합 극단 하이징스의 작품 <프레드>(Meet Fred)와 백색증을 가진 예술가 조 배논의 <시선>(Exposure), 그리고 뇌성마비 예술가 댄 도우의 <조건>(On One Condition)은 작품을 통해 장애가 극복해야 하는 한계가 아님을 독특한 예술적 언어로 관객들에게 전달하였다.

영국 장애 예술 공연 쇼케이스에 초청된 세 개의 작품은 장애가 부족함이 아닌 다름이며, 이 다른 재능이 어떻게 탁월한 예술 작품으로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공유하였다. 또한 공연 중 입·퇴장이나 소음을 허용하는 릴렉스 퍼포먼스를 도입하여, 장애인 관객들의 편안한 공연 관람을 도왔다.

아티스트 토크에서는 초청된 모든 예술가 및 예술 단체가 작품 제작 과정에서 마주한 장애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비주류의 경계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과 사회에서 장애가 어떻게 다름으로 포용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릴렉스 퍼포먼스 (Relaxed Performance)

장애인 관객 친화적 공연 관람 문화를 지칭하는 릴렉스 퍼포먼스는 장애로 인해 공연 관람을 망설이는 관객들을 위해 예술가와의 사전 협의 및 관객 대상 사전 안내를 통해 공연 도중 불가피한 입·퇴장 및 소리, 객석 간 이동 등을 허용하고 공연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포용적 공연 관람 문화를 말한다. 자폐성 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관객들은 어두운 곳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객석을 완전히 소등하지 않거나 조명을 부드럽게 조정하여 장애인 관객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는 소리에 민감한 관객들을 위해 음량 및 음향 효과를 조절하기도 한다.

프레드

Meet Fred

HIJINX Theatre



WINNER
'Best Ensemble'
Wales Theatre Award
2017

“인형이 살아서 진짜 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에딘버러 페스티벌 (Edinburgh Festival)

“비판적 사고를 좋아하는 어른들을 위한 똑똑한 작품 ”

-더 스테이지 (The Stage)

초청 작품 및 예술가 : 프레드(Meet Fred)

<프레드>는 비장애 배우들과 다운증후군, 자폐 등 발달장애를 지닌 배우들이 함께 출연하는 인형극이다. 2016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선보인 후, 전 세계 16개국 67개 도시에서 공연되었다. 인형 프레드가 극 중 인형생존수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마주하는 현실과 편견이 가득한 하루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인형인 프레드는 장애인과 사회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한다.

하이징스 극단 (Hijinx Theatre)

영국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에 위치한 극단 하이징스는 영국과 유럽 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장애/비장애 통합 극단이다. 하이징스 극단에는 다운증후군 및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항상 함께하며,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역할을 맡는다.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배우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계발하여 그들이 비장애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는 하이징스는 관객들이 장애를 가진 배우들의 재능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무대나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편견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질적으로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극단에서는 전문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동등하게 일하며,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전문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클레어 윌리엄스 (Clare Williams) 하이징스 극단 대표



클레어 윌리엄스는 지난 30년간 공연예술 분야에서 디자이너, 디렉터, 공연장 매니저, 프로그래머, 행정 전문가로 일해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4년간 웨일스 지방의 성곽, 산업 부지 등에서 진행된 장소 특정형 커뮤니티 프로그램인 콜드론즈 앤 퍼네시스(Cauldrons and Furnaces)의 프로그래머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었으며, 이는 런던 올림픽 문화 올림픽아드의 일부로 소개되었다.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진 장애 예술이 어떻게 더 포용적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클레어 윌리엄스 인터뷰

Q 하이징스 극단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A 하이징스의 미션은 무대나 스크린에서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배우를 보는 일이 흔한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극단의 배우들은 장애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남과 다른 개성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재미있고 흥미로운 사람들로 만들죠. 또한, 그들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배우에게 필요한 환상적인 조건이죠.

하이징스는 장애를 지닌 배우들에 대한 연민 어린 호평을 거부합니다. 관객은 작품 그 자체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저는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제작자들이 '정치적으로 올바른 행위'이기 때문에 '장애인 배우'를 고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어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를 지닌 배우를 캐스팅하면 보다 진실한 연기가 가능하고, 더불어 작품의 예술성도 높아진다는 사실, 이에 따라 관객의 흥미도 훨씬 커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Q 극단 내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극단에는 장애를 지닌 배우와 그렇지 않은 배우들의 비율이 반반입니다. 급여와 대우에서 모두 동등합니다. 장애가 있든 없든, 모두 전문 배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극단의 모든 배우를 전문 배우로 대하며, 그들과 함께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듭니다.

Q 하이징스 아카데미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가르치나요?

A 영국 웨일스 지방에는 학습/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3천 명이고,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의 수가 1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전체 성인 인구의 2.16%, 그리고 아동 인구의 2.5%가 학습/발달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특수학교에 갈 수 있지만 모든 교육은 19세에 끝이 납니다. 마치 19살에 은퇴를 한 것처럼 이후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하이징스 아카데미에 속한 청년들은 전문 배우가 되고 싶다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19세에 학교를 떠난 후에 이들에게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이 좋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술 수업이나 강연을 듣거나 작은 문화센터에서 무용이나 드라마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배우가 되고 싶다는 이들의 꿈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하이징스는 이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하이징스 아카데미에서는 풀타임으로 전문 배우가 되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아카데미에 있는 배우들은 연간 800시간의 수업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최고의 안무가나 감독, 그리고 영화제작 관계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로 평가받는 전문인들로부터 수업을 받습니다. 아카데미에서는 1년 과정으로 수업을 받게 되는데 서커스 기술을 배우기도 하고, 무언극, 코미디 연기, 즉흥 연기, 앙상블 연기 등을 배우게 됩니다. 매일매일 집중적으로 45분 동안 마인드 컨트롤 수업과 요가 수업도 받습니다. 그리고 요일별로 3시간 동안 현대 무용, 광대 수업, 즉흥 스토리텔링, 오디션 스킬 등을 배웁니다. 요일별 프로그램은 12주 단위로 운영되는데 12주 후에는 업계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학생들의 작품이나 자신들의 성과물을 평가받게 합니다.

아카데미에서 연극 수업의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놀이를 통해 연극 기술을 배우도록 합니다. 수업 중에 대본을 나누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셰익스피어의 리어왕과 같은 작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카데미 학생들이 즉흥적으로 놀이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작품을 바탕으로 공연을 만듭니다.

다른 드라마 스쿨에서는 3년간의 교육을 마치면 보통 에이전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지만 하이징스는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와 맞는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배우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캐스팅을 돕기도 합니다.

2012년 7명이었던 학생이 제가 취임한 후 12명으로 늘어났고, 이후 오디션을 통해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웨일스 서부로까지 아카데미가 확대되었고, 3년 만에 70명의 배우를 교육하는 곳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는 대기가 매우 길입니다.



**Q 하이징스의 대표를 맡은 이후,
장애 예술을 주류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면?**

A 우리는 비주류로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뭔가 다른 연극을 선보이는 특이한 극단으로서 보여지기보다는 주류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얼마나 훌륭한 연극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극단과 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최고의 극단들,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만든 극단들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펀치드링크(Punchdrunk)인데요. 영국에 기반을 두고 뉴욕과 상하이에서 몰입형/체험형 연극을 선보이고 있는 세계적인 극단입니다. 우선 이들과 수차례 워크숍을 가진 후 공동 제작한 연극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014년 작 <비니쓰 더 스트리트>(Beneath the Streets)는 카디프의 도시 중심가 상점들 밑에 어두운 지하 세계가 존재한다는 설정의 몰입형/체험형 연극으로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카디프 캐슬 아케이드 쇼핑몰 밑에서 발견된 터널에서 벌어지는 장소특정형 연극이기도 합니다.

펀치드링크는 이미 아주 두텁고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연을 펀치드링크의 공연인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이 연극은 펀치드링크의 모든 특색을 가진 공연이었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자폐증이나 다운증후군을 가진 배우들이 무대에 함께 오른다는 것입니다. 관객 중의 대부분은 이전에 이런 학습/발달 장애가 있는 배우들의 공연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공연 후에는 모두 놀람과 동시에 감동을 하였습니다. 이 공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후 매진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후속작 역시 성공적이어서 저희는 이런 협업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객층을 만나게 되었고, 그 관객들은 이제 학습/발달 장애가 있는 배우들을 전문 배우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연한 <프레드> 역시 우리가 인형극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형극으로 유명한 블라인드 써밋(Blind Summit) 극단에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관절 인형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중 인기가 좋았던 인형을 프레드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웃도 없고 얼굴도 없는 프레드는 인형이 되고 싶지 않은 인형이죠. 프레드는 상자에서 나온 인형의 이야기를 들려 줍니다. 상자 속 인형이 라벨이 붙어있던 상자에서 뛰쳐나와서 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싶지 않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누군가 자신에게 붙여진 라벨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인형은 인형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과 방식에 대해 반항하게 됩니다. 프레드는 인형극 안에서 자신이 희생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죠. 프레드는 입도 거칠고 욕도 잘하지만 유머 감각도 뛰어나고 재미있습니다. 성질이 아주 더러운 인형인데 무엇보다 일자리, 여자친구, 자신이 살 공간이 있는 일반적인 삶을 원합니다.

사실 첫 공연에서 공연 3~4시간 전까지 표가 한 장도 안 팔렸습니다. 초대권을 나누어 주었지만, 개막날에 아무도 오지 않아 손실을 보았죠. 하지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매진되기 시작했고 더 큰 공연장으로 옮겼지만, 또 매진이었죠. 축제에 초청되었을 때에는 블라인드 써밋이라는 이름을 보고 많은 사람이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이후에는 블라인드 써밋이라는 이름도 크게 작용을 했지만, 입소문을 통해 좌석이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학습/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문 배우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프레드>는 개막에는 관객이 한 명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전 세계 16개국 67개 도시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이 연극은 학습/발달 장애 배우들에게 있어 모든 것을 뒤흔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Q 해외 협업 사례가 있다면?

A 현재 중국 상하이에서 아카데미 설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프레드>의 중국어 버전 작품 제작도 도와주고 있는데요. 해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극단을 좀 더 전문화하고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레소토에서는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는 장애 아동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국 투어 공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는?

A 영화 <레인맨>에는 자폐증을 가진 레이먼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할리우드의 명배우로 손꼽히는 더스틴 호프만은 그 역할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아이 엠 샘>이라는 영화에서도 지적 장애를 지닌 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배역을 맡았던 손 펜도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영화에서 백인이나 아시아계 배우가 검은색 메이크업을 하고 흑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의 역할을 자폐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맡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애를 지닌 역할을 장애가 없는 배우가 연기하는 것은 백인이 흑인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배우를 양성하여 장애를 가진 배우가 2030년까지 골든 글로브상이나 오스카상을 받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선

Exposure

Jo BANNON



“강력하고 솔직하며 입체적인 자화상. 그리움이라기
보다는 은은한 슬픔이 묻어나는 작품”

- 엑시언트 매거진 (Exeunt Magazine)

“...이 작품은 매우 특별하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배넌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무대를 떠나면서 아티스트를 축하해주기보다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싶게 하는 공연이었다”

- 토털 씨어터 (Total Theatre)

초청 작품 및 예술가: 시선 (Exposure)

백색증 예술가 조 배넌(Jo Bannon)의 <시선>은 한 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탐구하는 짧은 공연이다. 관객은 빛과 소리가 차단된 블랙박스에서 예술가와 일대일로 만나게 된다. 이 작품은 조명을 이용하여 본다는 것과 보여지는 것의 긴밀한 관계를 알아보도록 구성되었다. 어둠과 빛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보여지는지, 또 그것이 실제로 '보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던진다.

조 배넌
(Jo Bannon)



조 배넌은 기존의 편협한 시각들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본능적이라 부르는 익숙한 행동과 시각과 청각을 사용하는 직관적인 방식들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작품을 창작한다. 영국은 물론 유럽, 남미, 미국, 중국, 호주 등 전 세계의 주요 아트센터 및 극장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조 배넌 인터뷰

Q 본인의 예술 활동 방식과 주제는 어떤 것인가?

A 저는 영국 남서쪽 브리스톨 출신의 예술가입니다. 지난 10년간 주로 공연 예술 분야에서 작업을 해 왔습니다. 저는 가끔 다른 단체들과 협력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혼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제가 스스로 구상을 하고 팀을 구성해서 일하거나 기금 모음, 홍보 등의 제작 전반의 일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는 백색증으로 인한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색증은 피부, 머리카락, 눈에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어 생기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백색증은 외적인 모습에도 영향을 주지만 제 시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제 작품은 종종 시각 장애로 인해 다르게 보이는 저의 다른 시각을 통해 투영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체가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와 이런 감각적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가능한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이런 정체성 및 감각적 주체로서 몸의 경계가 제 작품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Q 대표작을 소개한다면?

A 한국에서 선보인 <시선>(Exposure)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자전적인 작품으로 시각 검사를 하면서 겪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작품입니다. 관객 한 명을 대상으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지는 짧은 몰입형 공연입니다. 대부분 어둠 속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빛은 내러티브상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작품에서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반영해주기 때문입니다. 제 눈은 백색증 때문에 매우 예민한데 빛과 어둠을 이용해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관객과 공유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관객들에게 제가 경험하는 시각적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진에서 쓰이는 플래시의 작용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빛과 어둠을 이용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알바>(Alba)라는 작품은 가장 최신작이고 <시선>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선>과는 다르게 <알바>는 많은 관객을 위한 무대 공연입니다. 이 작품 역시 저의 백색증으로 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상적인 도구, 빛의 혼합, 움직임, 소리 등을 이용해 만드는 시각적인 시(時) 또는 라이브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작품의 주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작품의 주제를 확장하고자 하는 바람은 없었는지?

A 장애가 있는 예술가들이 너무 장애에 집중해서 그 외의 것들을 다루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색증을 가진 사람은 2만 명에 1명이고, 제 작업은 굉장히 좁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서 저는 백색증만을 다룬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걸쳐 작업을 합니다. <알바> 같은 경우는 백색증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작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주제를 확장합니다. 또한 백색증에 대해 다루지 않는 작품들도 만들고 있으며, 장애 예술가니까 장애를 다루는 예술을 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Q 백색증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의 범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장애라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면만 보게 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에서도 이중성, 즉

밖에서 볼 때와 제가 세상을 볼 때의 이중성을 다뤘는데요. 저는 외적으로도 백색증이지만 저의 눈도 백색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사람들의 시선이 부정적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상적으로 불편함 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색증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좀 더 편리하게 생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그런 방법들을 터득하여 살고 있으므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체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이 다양한 범주의 장애를 겪고 있지만, 차별적 대우 때문에 장애인임을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한 디자인 회사에서 visibility93이라는 캠페인을 통해 기존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 기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9가지 장애인 기호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1968년부터 사용해 온 휠체어를 탄 장애인 기호는 눈에 잘 띄고, 효과적이어서 공공장소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을 배제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중 93%의 사람들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는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화하면서 시각에 문제가 생기거나 혼자서 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장애라는 것은 인간 삶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우리는 대부분 늙어가면서 한 종류 이상의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장애인이라 인식하고 있고, 장애의 개념 및 범주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Q 개인 작업을 하는 것에 있어 장단점이 있다면?

A 혼자 일하는 것의 장점은 누군가가 정한 주제를 가지고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단점은 작업 과정을 공유하기 힘들고 영국에서는 많은 지원이 규모가 큰 기관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10년간 이렇게 일해 온 걸 보면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로 아티스트로 일을 하는 이유는 저의 작품들이 개인적인 정체성, 또는 자전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흔치 않은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사는 저의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 온 경험 때문에 각 개인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그 개별성에 대해 탐구하는 작업을 주로 하게 되었지만, 이 개별성과는 매우 상반되게 종종 공동 작업에도 참여합니다.

Q 예술을 시작한 동기와 작품 활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는?

A 사실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연극에서 여왕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무대 위에서는 관객들이 저를 여왕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보이시기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이 세상에 더는 원하는 게 없다면 예술 작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대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좀 더 사람들이 가진 차이에 대해 포용적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연민이 아니라 공감을 원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작품을 통해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이자 성취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조건

On One Condition

Dan DAW



“꼭 봐야 하는 공연...
모든 예상이 깨질 것을 예상할 것.
평생 기억에 남을 작품”

-더 브로드웨이 월드 (The Broadway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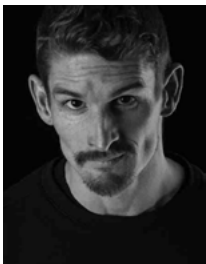
“댄의 공연은 춤과 연극이 절묘하게 섞여 있다. 이
작품은 분명히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작품”

-아들레이드 나우 (Adelaide Now)

초청 작품 및 예술가: 조건 (On One Condition)

<조건>은 무용과 연극을 넘나들며 담담하게 삶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는 작품으로 뇌성마비를 가진 예술가 댄 도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일인극이다. '정상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예술가의 질문을 담은 작품이다. 댄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안무가 그래함 에이디와 협업하여 창작된 <조건>은 관객을 댄의 어린 시절 집과 이후 그의 삶의 여정으로 초대한다.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정상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질문을 던진다.

댄 도우
(Dan Daw)



호주 출신의 댄 도우는 12살에 처음 무대에 오른 후 영국으로 이주하여 여러 무용단에서 활동해 왔다. 스코틀랜드 국립현대무용단, 칸두코 무용단 등을 거쳐 현재는 댄 도우 크리에이티브의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무용과 연극을 넘나드는 작품 활동을 하며, 작품 안에서 장애를 지닌 그의 신체를 관객들의 기대를 벗어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버밍엄을 중심으로 영국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작업해 나가고 있다.

그래함 에이디
(Graham Adey)



그래함 에이디는 무용가로 출발하여 현재는 안무가와 사진가로 활동 중이다. 영국을 비롯해 스웨덴,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의 예술가 및 예술 단체들과 협업해 오고 있다.

댄 도우, 그래함 에이디 인터뷰

Q 댄의 경우, 호주에서 영국으로 이주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댄: 호주에서 살 때, 저에게는 정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일반 학교에 다녔어요. 꽤 이른 나이에 '우리 사회에는 편견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들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6살에는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죠. 제가 살아오면서 마주친 장애물들이 쉬워지거나 적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이 단련되어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제가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만큼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좀 더 많아 보이는 영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저와 같은 장애인 무용가들도 많이 만났고, 예술적인 기회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Q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댄: 2007년에 스코틀랜드 국립 현대무용단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래함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막 영국으로 이사를 왔을 때였죠. 그리고 이후에 칸두코 무용단에서 일할 때는 같이 아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고요. 이후 가끔 마주치거나 친구들을 통해 소식을 알고 지냈죠.

그래함: 그리고 제가 스웨덴으로 옮겨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댄도 그 무용단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1년 정도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춤을 그만 추고 나만의 작품을 연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댄: 그래함이 <모던 컨디션>(The Modern Condition)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의 인체를 다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체뿐 아니라 인체와 다른 부분을 연결 짓는 것을 보면서 영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함과 작품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동 작업을 위한 리서치를 시작했고, 스웨덴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체험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품의 초안이 나왔습니다.

Q <조건>의 리서치와 작업 과정은 어땠나요?

A 그래함: 열흘 정도를 리서치와 구상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댄에게 많은 질문을 했고, 댄이 일상 속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안에서 선택할 것들을 선택하고, 대중들과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는 게 편안한지 댄과 상의했습니다. 저는 전에 한 무용단에서 전문 무용수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둘 다 무용계에서 오래 일을 했고, 제 경우에는 댄 이전에도 장애인들과 함께 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같이 작업하는 사람한테 매료되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색깔과 매력을 찾아내고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듭니다. 댄과의 작업도 그랬습니다. 댄이 특별하기도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댄의 매력을 발견하고 그 매력에 빠졌죠. 또한 깊은 우정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회 속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예를 들어 비장애인 친구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둘 다 무용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쓸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경험을 한데 모아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댄: 저는 이 작업에서 저 스스로 완벽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 봤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완벽이란 과연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완벽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작품을 구상하면서 여러 장면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완벽이란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는 표현들이 지금 작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함: 시작 장면은 작품을 만들면서 댄과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다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들게 되었어요. 작품의 초기 작업 중 하나였고, 그 장면을 첫 장면으로 만들고 나서 같은 테마로 마지막 부분의 장면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무용이 기술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그 기술을 표현하는 게 무용이고, 그 기술을 잘하면 무용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발레 동작을 배우고 나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 기술을 완벽하게 잘 표현해 내는 것이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그게 정답이 맞는지,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완벽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주제로 돌아가서 그 테마를 춤으로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Q 작품에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는데, 이것은 의도된 것인가요?

A 그레함: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연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이기도 합니다.

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어떤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 그것을 힘겹게 하고 있다는 것을 관객들이 봐주는 것입니다. 제 공연의 첫 장면인 양말을 신는 것은 제가 늘 하는 일이고 다른 분들도 늘 하는 일이지만, 제가 그것을 할 때 관객들에게는 힘겨워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늘상 하는 일이고,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리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레함: 첫 장면은 리서치 첫날에 만들어진 장면이에요. 사실 뭔가 힘겨워하는 걸 표현한 게 아니라 댄이 옷을 입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저는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습이 저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왔고, 힘겨워 보였고,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런 감정들을 느꼈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 장면을 봤을 때 나와 같은 감정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장면을 여러 번 보았는데 아직도 고통을 느낍니다.

댄: 저는 공연을 보러 온 관객들이 내 시간 안에서 나와 같은 시간을 경험하며 저를 보게끔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는 합니다. 관객들이 내가 결정한 대로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며 그것을 시간 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이 어떻게 제 작품과 상호작용하는지 혹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는 것도 예술가로서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관객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을 테고, 제가 하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불편하든 아니든 주어진 시간 안에서 행동하게끔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 작품을 봐주는 관객들한테만큼은 제가 감히 요구합니다. 저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따라와 주십사 하고요.

댄: 비평가들이나 다른 예술가들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작품을 보면 이 작업 안에서의 시간은 모두 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작업을 구상할 때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작품의 윤곽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저희한테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빠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다급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다급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것과 반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행동하거든요. 빠른 전개 of 작품을 기대했던 일부 비평가들은 작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 자신의 작품이 장애 예술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댄: 일단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이제 항상 사회로부터 저한테 따라붙는 꼬리표가 된 정체성이지만 않나 싶습니다. 사회에서 그렇게 꼬리표를 붙였지만, 저는 오히려 누구도 저한테 라벨을 붙이거나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고 제 행동에 있어서 주체자로서 결정을 내리고 책임지려고 해요. 하지만 물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그 속에서 속 터지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긴 합니다. 저는 예술가로서 제가 장애인일지라도 그 장애와는 상관없이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예술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요인이 관객이 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는 점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함: 저는 장애 예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게 있나 싶습니다. <조건>의 경우도 저는 이 작품을 장애 예술이라 생각할 의도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멋진 예술가와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생각밖에 없었죠. 어떤 예술가나 자기의 작업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술이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저는 그것 또한 예술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예술과 같아요. 오히려 장애 예술이라는 분야를 나누어서 생각할 때 그렇게 제목이 붙여지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예술가들과 다를 바 없이 예술 활동을 하는 장애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댄: 그리고 장애 예술로 구분 짓게 되면 관객들의 기대 또한 낮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니까 별로겠지' 내지는 '노력하는구나', '열심히 잘하네'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함: 사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전 시

춤을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 (11 Million Reasons to Dance)

<춤을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는 언리미티드 임팩트(Unlimited Impact)의 기금과 피플댄싱 재단(People Dancing)의 기획으로 탄생한 장애인 예술 사진전이다. 사진작가 셴 골드스롭(Sean Goldthorpe)의 주도 아래, 청각 및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영화 속 상징적인 장면들을 재연출하였다. 사진 촬영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청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전문/직업 무용수들이다. 감동적이며 재치 있는 20점의 사진 작품들은 장애인 무용수들을 향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한다.



Mickel Smithen © Sean Goldthorpe

언리미티드 임팩트 (Unlimited Impact)

언리미티드 임팩트는 언리미티드 프로그램의 한 축으로 젊은 장애인 예술가들의 재능을 계발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플댄싱 (People Dancing)

1986년에 설립된 피플댄싱은 커뮤니티 댄스와 참여 무용을 위한 단체로 전 세계적으로 2,3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4,500명에 달하는 전문 무용수들과 함께 일한다. 커뮤니티 댄스의 선두 기관으로 토론과 교육,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커뮤니티 댄스를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million reasons to dance

춤을 추는 천백만 가지 이유
장애예술 사진전

2018.3.9-23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 이음갤러리

www.britishcouncil.kr/uk-korea-2017-18



미디어 커버리지

<페스티벌 아름다운: 아름다운 다름>

“장애-비장애 함께 그려낸 아름다움”

“한계 잇는 한·영 예술가들의 특별한 창작 무용”

“예술과 장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

“예술과 장애의 새로운 인식을 선사할 축제!”



동아일보

<영국 장애인 예술 쇼케이스>

“장애에 대한 편견,
유쾌한 웃음으로 깨뜨려”

“장애인이 살아가는 현실을 독특한 시선에서 조명하고 뼈 있는 유머를 던져
관객에게 웃음과 함께 편견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려 한다”

“모든 공연을 탁월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장애인 연극에 대한 낮은 기대치를 뒤집고
관객을 놀라게 하는 게 목표”

2021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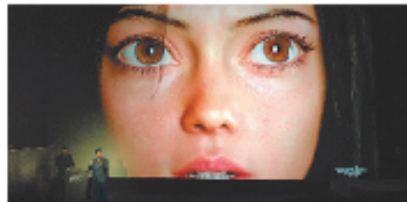
김 제민기자 김지영(문화) 기자 김지영(문화) 기자 김지영(문화) 기자

“맨땅에 헤딩했던 ‘더위’의 경험 내겐 큰 자산”

장애를 ‘주어진 선물’로 여기고
장애인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테마별 특화, 페미니즘 독립잡지 존다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가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장애인 예술가들의
시선에서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장애 예술의 가능성은
무엇인가?

한국일보

“장애인 출연하면 수준 낮은 연극? 작품 하나에 2년씩이나 연습해요”

“하이징스는 영국 웨일스 지방 카디프에 위치한 극단으로 72개 도시, 18개국, 4대륙을 돌면서 최근까지 176회의 공연을 가질 정도로 활발히 활동 중”

“하나의 연극을 올리는 데 대략 2년이 걸리는데 장애인 배우들도 아카데미 워크숍을 통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철저하게 연습을 한다”

“장애인들이 출연하는 연극이라서 봐준다는 ‘시혜적’ 눈빛을 우리는 거부한다”

“영화 ‘레인맨’을 보세요. 할리우드만 해도 장애인은 아예 안 보이거나 혹은 자폐아=천재 같은 특정 이미지로만 소비됐어요. 하지만 장애인들 역시 다양한 결을 가진 캐릭터로 그려져야 해요. 제 꿈은 2030년에 장애인 배우가 오스카상을 타는 것과,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연극을 보고 꿈을 심어주기를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배우... 소리 내도 나가도 괜찮아요”

“릴렉스 퍼포먼스는 사전에 제작진과 협의해 공연 도중 불가피하게 장애인 관객이 퇴장하거나 자리에서 소리를 내도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공연 관람 문화”

“그동안 백색증 환자는 매스미디어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나 뱀파이어, 외계인, 천사 등의 고정화된 이미지로 나타났다. 작품을 통해 그러한 편견을 바꾸고 싶었고, 나에게겐 큰 선물과 같은 경험이 됐다”



▶ 기사 전문 보기

경향신문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는 모두 전문 배우”

“장애는 남과 다른 개성으로 장애 지닌 배우 캐스팅하면 진실한 연기에 관객 흥미도 커져..
장애 지닌 배우 만나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상 만드는 게 꿈”

“우리 극단에는 장애를 지닌 배우와 그렇지 않은 배우들의 비율이 반반.. 급여와 대우에서 모두 동등”

“우리 극단의 미션은 분명합니다. 연극 무대에서든, 스크린에서든 장애를 지닌 배우를 만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 기사 전문 보기

기 고

영국의 장애 예술을 만나다

김지수 (극단 애인 대표)

2007년 창단한 극단 애인은 중증의 지체 뇌 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애인은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으로 인한 불규칙한 호흡, 경직과 이완의 연속인 떨림, 시차가 다른 언어, 휠체어와 한 몸인 움직임 같은 신체 표현과 각자 다른 시간의 흐름 등 '장애'로 인한 '다름'이 장애인 극단의 특징이자 소통의 방법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창단하게 되었다. 창단 공연을 올린 후 워크숍으로 발표했던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를 배우들의 움직임과 호흡에 알맞은 속도와 리듬으로 표현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을 4년여 반복해 온 끝에 2013년 밀양연극제에서 대상과 연출상, 남자 배우상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극단 애인을 기억하는 첫 번째의 작품으로 <고도를 기다리며>를 떠올리게 되었다.

장애인 극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배우들의 신체적인 정체성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장애와 관련된, 혹은 장애인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다. 고전 희곡을 극단에 재해석하는 것과 현실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 이 두 가지 축을 극단의 공연 기조로 삼고 단원들의 속도에 맞춰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다. 창단 10주년이 지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다양한 장애 예술인들의 활동도 늘어났고, 창작 영역도 꾸준히 확장 되면서 연극계 또한 장애인 극단의 작품과 예술성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지고는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극단 애인도 2018년에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공연과 제주 장애인 연극제, 제1회 페미니즘 연극제, 정기 공연 등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 예술과 장애 연극이 무엇인지, 장애 예술가로서 어떤 작업을 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갈증이 깊어지던 즈음 영국문화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최한 공연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모든 단원이 다 함께 모든 공연과 토크,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제일 먼저 조 배넌(Jo Bannon)과의 토크에 참여했는데 그녀의 이야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가 영감을 얻고 작업을 해 나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어머니와의 대화와 관계라고 하는 이야기였다. 어린 시절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 등 백색증을 가진 그녀가 겪은 일들은 한국의 장애 예술가들이 겪은 과거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그녀에게 들려준 이야기와 대처 방식은 '장애'로 인한 '다름'을 부족함이 아닌 '신비로운 사람'으로 여기고 예술가로서의 수월성을 갖게 된 원천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공연 또한 본인의 장애와 관련 하여 타인과 자신이 어떻게 사물을 보고, 또 보여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가 겪고 있는 시각적인 방식으로 초대하여 관객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장애와 비장애, 보여지는 사람과 보는 사람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감동이 있었다.

공연을 볼 때마다 단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단원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공연은 댄 도우(Dan Daw)의 <조건>이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댄 도우는 양말 신기, 옷 입기와 같은 신체적인 움직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반복해야만 되는 일상의 생활을 놀이처럼 보여주면서 관객들을 그의 시간 끌어들이고 관객과 소통을 한다. 극단 애인의 단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몸이었지만 그것이 무대 위에서 예술적 움직임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더욱 새로웠다. 물론 댄 도우 배우는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에서 무용을 연마했고 그런 움직임이 빛났지만, 만약 우리나라의 장애 배우들이 비슷한 공연을 했다면 관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지기도 했다.



조 배넌 © 주한영국문화원



댄 도우 작품 <조건> © Foteini Christofilopoulou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이징스(Hijinx) 극단의 아카데미와 전략이었다. 발달 장애인들과의 연극 교실 활동을 3년째 해오면서 발달 장애인들의 특성상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꾸준히 무언가를 연마할 수 있으면 다양한 경험과 자극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이징스는 수십 명의 학습/발달 장애인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고 배우로서 육성할 수 있는 전문 기관과 강사진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부러웠다. 또한 장애 예술인들이 비장애인 예술가들과 협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 예술가의 신체적, 정서적 특징을 알고 서포트 해 줄 수 있는 매니저나 지원인데 하이징스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함께하는 스텝들이 있다. 그렇기에 장애 예술가들이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클레어 윌리엄스 대표의 말처럼 2030년 안에 오스카와 골든글로브 등을 수상하는 장애 배우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와 목표가 실천 가능하리라고 믿어졌다. 극단 애인의 단원들이 모두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장애인 역할은 장애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바람과 목표를 갖고 있지만 너무나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이 몹시 안타까웠다.



하이징스 극단 워크숍 © 주한영국문화원

영국에서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점과 정책적인 지원을 생각하면 한국의 장애 예술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공적인 지원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장애 정체성을 잃지 않고 창작 활동을 펼쳐온 수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존재했기에 현재의 극단 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창작자들이 '생존'할 수 있었고 이제 생존을 넘어 '장애 예술', '장애 예술인'으로서의 발전에 대한 고민과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한국의 '장애 예술'이 '장애'라는 말 안에 갇히지 않고 '장애'로 인한 수월성으로 빛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용하는 관객과 창작자들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국문화원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기획 덕분에 1월이 활기찼다. 앞으로도 외국의 장애 예술가들의 공연을 보고 예술가들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한 한국과 영국의 장애 예술가들이 워크숍 형태의 공동 공연 등 함께 작업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장애로 인한 경험이나 그것을 무대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영국과 한국의 장애 예술가들이 공감하고 협업할 수 있는 또 다른 접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지금 극단 애인은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어둡고 편안한 공간에서 조 배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듣고, 보고 그녀의 무대인 블랙박스를 빠져나오는 순간 가슴속에 차오르던 감정과 눈물의 의미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연습실에 간다.

김지수는 2009년 극단 애인을 창단했으며, <고도를 기다리며>, <너는 나다>, <들판에서> 등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발견의 순간, 순간의 발견

이연주(극작, 연극 연출가)

10년 전 즈음으로 기억한다. 월간 <한국 연극>에 장애 예술에 대한 해외 사례가 소개됐는데, 그 기사를 읽으면서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존재한다는 점과 교육과 연계된 활동을 통해 장기적인 목표를 실행해가는 것에 머물렀다. '이렇게나 다양하구나. 우리도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감격했던 것 같다. 당시 한국에는 장애 예술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접근이나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에 방법론에 대해 절실했다.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론을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시작한 작업들이었다.

당시에 장애인 극단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미 10여 년의 작업을 이어가는 극단 월과 장애인 운동 단체인 노들 야학을 기반으로 설립된 극단 판, 그리고 장애 여성극단인 춤추는 허리화 장애, 비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모인 극단 다빈나오 등이 각자의 창작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극단 애인은 이제 막 창단한 극단으로, 장애인 전문극단을 표방했다. 굳이 장애인 전문극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에는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만큼 장애 예술이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로 한정되어 아마추어들의 활동으로 취급된 것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예술의 형태로 장애 예술이 인식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극단 애인의 단원들과 함께 작업했던 무대는 늘 새로운 도전이었다. 장애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연출을 이제 막 시작한 나, 그리고 새로이 연극, 연기를 접하는 배우들이었기에 새로운 연극을 시작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구성이었던 것이다. 물론 지금 돌이켜봤을 때 그렇다. 당시에는 하루하루 '어떻게'와 '무엇을'을 끊임없이 고민하던 과정이었다.

우리만의 새로운 연극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선택은 장애 예술가만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한국의 장애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나아간 점이 있지만, 여전히 관객의 시선은 장애 예술가와 비장애 예술가를 비교의 대상으로 나누고 있다. 물론 공연을 통해 협업의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면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장애 예술을 접하는 관객 또한 한정되어 있기에 어쩌면 그때의 우리는 좀 더 분명한 선택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정상성에 대한 기대를 순순히 무너뜨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협업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하기보다는 장애인 배우의 연기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작은 <고도를 기다리며>(2011-2013)¹⁾였다. 당시에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창작극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왕 장애인 전문극단을 표방한 만큼 고전 희곡에 도전해보자는 것이었다. 신체장애가 있는 배우와 지적장애가 있는 배우가 참여했는데, 모든 상황을 행동 지문으로 먼저 정리하고 움직여보면서 서로 다른 호흡에 꾸준히 반응해갔다. 관객의 반응은 다양했다. 호평도 받았지만, 언어장애가 있는 배우의 화술을 문제로 여기는 반응 또한 많았다. 그러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진행할 뿐, 별도의 자막은 사용하지 않았다. 배우의 언어 장애 또한 연기의 일부로 인식되는 구체적인 순간을 관객이 만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막연하게 장애를 응원한다거나 장애가 없었다면 더 좋은 공연을 이뤘을 것이라는 반응 등 관객과의 소통이 장애 자체에 갇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공연의 확장을 원했고 장애 자체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 우리는 장애와 각자의 장애에 대해, 그로 인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장애, 제3의 언어로 말하다>(2012, 2015)는 장애에 대한 사전적 정의로부터 각자의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극이었다. 탄생부터 가족을 만나고 사회를 만났던 과정을 순간에 대한 기억으로 접근하면서 장애인의 삶이 장애인 일반으로 인식되기보다 개별의 삶 안에 장애가 자연스럽게 삶의 조건으로 재인식되었던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1인 극장, 1인 예술가로 나아가기 위한 접근이기도 했다. 비장애 예술가인 연출의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을 넘어서고 싶었기 때문이다. 10대가 될 때까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방에서 살았던 40대 장애인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했던 20대의 장애인, 학교와 시설의 경계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많은 곳을 떠돌아야 했던 30대 장애인의 이야기가 각자의 기억의 방에서 만났다. 그와 함께 각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이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썼고, 누군가는 말로 풀어내며, 누군가는 함께 토론했던 과정을 녹취, 기록하여 각자의 언어를 대본으로 담아내려고 했다. 다양한 삶의 순간들을 공유했고, 여전히 극단 애인과 함께하고픈 이유가 되었다. 대단한 소명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번 공연들에서도 다양한 순간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예술가의 시선과 관객의 시선이 짧은 시간 속에서 깊은 정서적 유대로 만났던 <시선>(Exposure), 인형극이라는 형식 안에 거침없는 풍자로 현실의 영역을 무대로 끌어오면서도 다시 현실을 바라보게 했던 <프레드>(Meet Fred), 그리고 우아한 움직임과 위트로 사회의 차별을 유영했던 <조건>(On One Condition)이 그러했다. 각자의 고유한 시선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체적이면서 빛나는 무대의 순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에 놓인 사회적 인식을 아주 사적인 삶의 이야기로 만나는 극장의 순간들. 개별화된 시선이 갖는 특별함, 그 순간들이 모여 예술로 발견되고, 발견된 예술이 만나는 순간들이었다. 조 배넌의 따뜻한 눈동자와 다리 조종수가 해고되어 프레드가 팔로 기어서 올라가다가 조연출 마틴의 협업으로 걸었던 순간과 바로 따뜻함을 깨버리는 현실의 차가움, 그리고 댄 도우가 객석을 향해 짓던 웃음이 내 몸에도 아직 남아 있다.



<프레드> © Holger Rudolph

운 좋게도 세 공연을 관람하고, 별도의 워크숍에도 참여할 수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인 시간은 하이징스 워크숍이었다. 연출가의 지시보다는 단원들이 서로를 이끄는 협업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예술적 충동을 끌어내고, 다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수렴의 과정이 발생했다. 예술로 인해 각자의 삶이 확장되고, 또 각자의 삶에 집중되어 예술과 삶이 만나는 순간들이기도 했다.

우리는 늘 다양한 예술을 꿈꾼다. 각자의 삶이 다양한 만큼 예술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 믿지만, 예술에 대한 강력한 전제와 역사가 새로운 실험을 방해하기도 한다. 예술이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삶에서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한 노력은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순간을 섬세하게 발견해내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삶을 재현해내는 것 이상의 예술적 순간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교류를 통해 더 많은 순간을 만나고 싶어진다. 순간을 발견해가면서, 서로를 발견해가면서.

- 1) 부조리극이라는 극의 특성상 인물의 장애 유무가 배우의 연기를 제한적 시선에 가두지 않는다는 생각도 있다. 극단 애인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사무엘 베케트, 2011-2013)와 <전쟁터 산책>(페르난도 아라발, 2017)을 공연한 바 있다.

이연주는 극단 애인의 외부 연출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1인 단체인 전화벨이 올린다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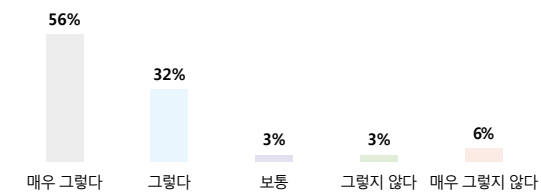


하이징스 극단 워크숍 © 주한영국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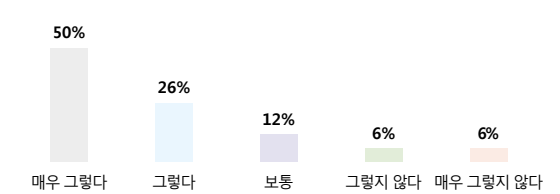
설문 (Survey)

장애인 예술 아티스트 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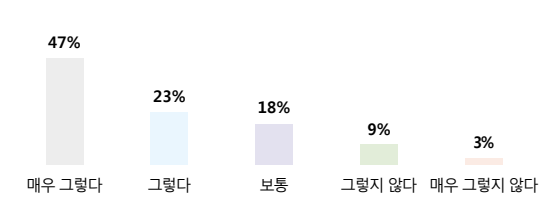
취지와 기대에 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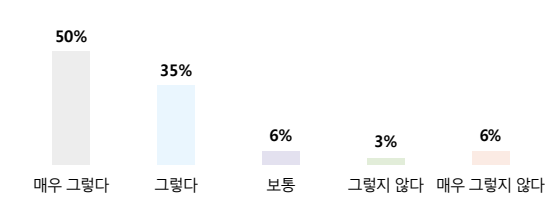
행사의 질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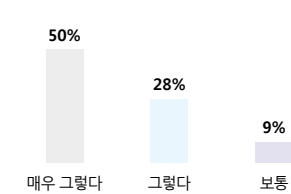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함양했다.



장애인 예술, 예술의 포용성,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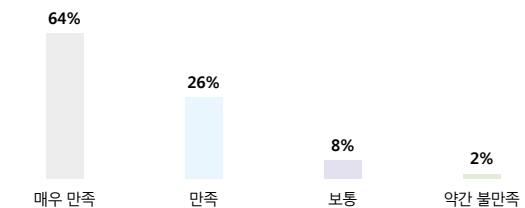


추천 의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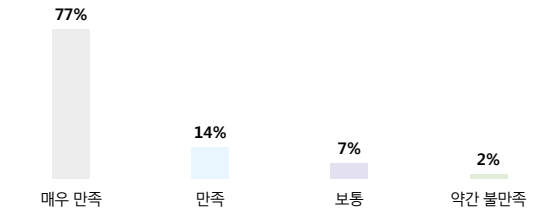


장애인 예술 쇼케이스

작품에 대해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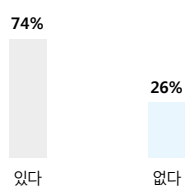


공간 접근성에 만족한다.



장애인 예술 관람 경험

장애인 예술 관람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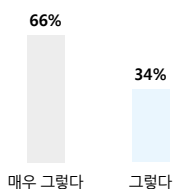


재관람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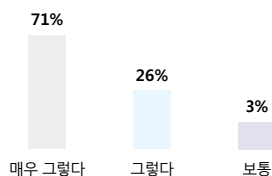


주한영국문화원과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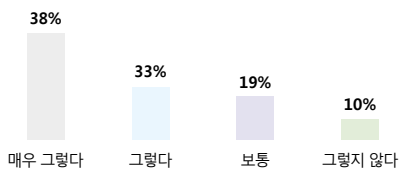
주한영국문화원과의 협력은 전반적으로 나의 기대에 부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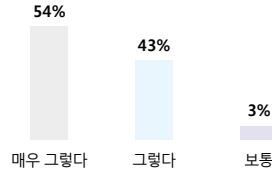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행사의 질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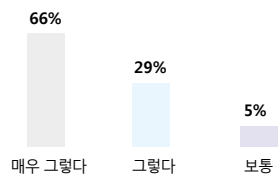
나는 행사 참여 전부터 장애인 예술과 참여적 예술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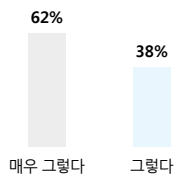
본 행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장애인 예술과 참여적 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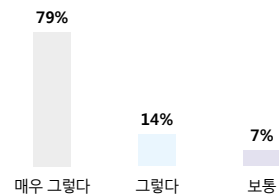
본 행사는 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본 행사는 영국 예술가/예술 전문가/예술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증진했다.



본 행사는 한국 예술가/예술 전문가/예술 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의지를 증진했다.



관계자들의 한마디

“ 워크숍과 강연에서 관객들과의 질문과 대화가 매우 깊고, 생각할 점이 많았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가, 기자, 정책 전문가 등 다양한 참가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 클레어 윌리엄스, 하이징스 극단 대표

“ 한국에 다시 돌아와 예술가/예술전문가 및 예술 기관들과 협업하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신진 장애 예술가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

– 댄 도우, 예술가

“ 일상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는 한국의 예술가들과 극이나 안무를 발전시켜 보고 싶습니다. 양방향 교류를 통해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습니다. ”

– 조 배넌, 예술가

“장애 예술가를 전문가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 예술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국내의 기관 및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연극 관계자들에게도 장애 예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 이연주, 프리랜서 연극인

“사업기획, 운영 과정에서 국제적 정책 동향에 수월하게 접근하고 협력할 수 있었던 점 - 수준 높은 전문가 풀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었던 점 - 사업 홍보 및 언론 대응에 있어 영국문화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한 점이 좋았습니다.”

– 오세형,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팀장

영국의 장애인 예술 관련 기관 / 단체 / 예술가

접근성 (Access)

에티튜드 이즈 에브리씽 (Attitude is Everything)

<http://www.attitudeiseverything.org.uk/>

에티튜드 이즈 에브리씽은 관객, 아티스트, 음악 업계와 협력하여 청각 장애인 및 장애인들의 음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하는 자선단체이다. 페스티벌이나 공연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기준을 권고하고 음악가들에게도 장애인들을 위한 가이드를 배포한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연장을 위한 안내서> 다운로드 \(한글\)](#)

[<장애인을 배려하는 페스티벌을 위한 안내서> 다운로드 \(한글\)](#)

[<장애인을 배려하는 인디 밴드 공연을 위한 안내서> 다운로드 \(한글\)](#)

[<야외 행사를 위한 접근성 톨킷> 다운로드 \(영문\)](#)

스테이지 텍스트 (Stage Text)

<http://www.stagetext.org/>

자선단체인 스테이지 텍스트는 극장에서 실시간 자막 및 캡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극장들이 청각 장애인이나 청각이 약한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컬 아이즈 (Vocal Eyes)

<https://vocaleyes.co.uk/>

보컬 아이즈는 시각 장애 및 약시를 가진 사람들이 관객으로서 극장, 박물관, 갤러리, 유적지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기관으로 문화 예술 기관에 자문을 해 주거나 기관의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웹사이트를 통해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된 공연 정보나 갤러리 정보도 제공한다.

기관 (Organisation)

셰이프 아트스 (Shape Arts)

<https://www.shapearts.org.uk/>

셰이프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문화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장애인 예술인들과 단체들에게 포용적 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셰이프는 산하에 셰이프 오픈(Shape Open) 작품 전시회, 아담 레이놀즈 장학 재단(Adam Reynolds Memorial Bursary) 등을 운영하며, 영국 국립 장애인 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The National Disability Arts Collection and Archive, NDACA)의 설립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문화예술 기관들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공연장에서 릴렉스 퍼포먼스를 확대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아츠어드민 (Artsadmin)

<https://www.artsadmin.co.uk/>

아츠어드민은 장애 예술가의 재능을 계발하고 이를 위해 예술가들에게 워크숍 및 1:1 자문을 제공한다. 실험적이고 다원적인 예술 작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셰이프 아츠와 함께 언리미티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다이버스 시티 (Diverse City)

<https://www.diversecity.org.uk/>

다이버스 시티는 예술계에 평등과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단체이다. 다양한 배우들이 그들의 정체성이 존중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용적인 교육과 코칭, 리더십, 연기,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발견되지 않은 재능을 발견하기 위해 숨겨진 이야기와 목소리에 주목한다.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고 배우뿐 아니라 관객 그리고 커뮤니티를 변화시켜 결국에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대쉬 (DASH)

<http://www.dasharts.org/>

대쉬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이끄는 시각예술 기관으로 장애인 시각 예술가들에게 새로운 작품을 커미션하고 워크숍,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하트 앤 소울 (Heart n Soul)

<https://www.heartnsoul.co.uk/>

하트 앤 소울은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공유한다.

국립 장애 예술 컬렉션 및 아카이브 (NDACA CIC)

<http://www.ndaca.org.uk/>

지난 30년간의 장애인 예술 운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관하고자 생겨난 NDACA CIC는 예술계의 다양성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 예술의 역사를 공유하고 교육한다. 영국 전역의 장애 예술 단체 및 대학, 미술관, 박물관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한다.

극단 (Theatre Company)

엑스탄트 (Extant)

<http://www.extant.org.uk/>

엑스탄트는 시각 장애를 가진 전문 배우들이 활동하는 극단으로 시각 장애를 가진 배우뿐 아니라 관객들을 위한 새로운 연극의 영역을 연구하고 개척하고 있다. 작품의 제작 및 투어, 리서치, 개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마인 더 갭 (Mind the Gap)

<http://www.mind-the-gap.org.uk/>

마인 더 갭은 학습 장애 배우들로 이루어진 극단이다.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학습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일반 배우들과 동등하게 고용되어 전문 배우로 일하도록 훈련을 제공한다. 대담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만들어 이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소개하고 있다.

데피니틀리 극단 (Deafinitely Theatre)

<https://www.deafinitelytheatre.co.uk/>

데피니틀리 극단은 영국의 청각 장애 극단으로 2002년 설립되어 구어와 수어를 동시에 이용하는 작품을 만든다. 청각 장애를 가진 관객과 가지지 않은 관객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두 그룹이 서로에 대해 가진 선입견과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10주년을 맞아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에서 처음으로 수어로 된 셰익스피어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램프스 온 더 문 (Ramps on the Moon)

<https://www.rampsonthemoon.co.uk/>

램프스 온 더 문은 영국 각 지역의 대표적인 극장들이 모여 만든 컨소시엄으로 그레이아이 극단(Graeae Theatre)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장애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중형 연극 공연을 만들고 순회공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뉴 울지 극장(New Wolsey Theatre), 버밍엄 레퍼토리 극장(Birmingham Repertory Theatre), 로열 스트랫포드 이스트 극장(Theatre Royal Stratford East), 노팅엄 플레이 하우스(Nottingham Playhouse), 리즈 플레이 하우스(Leeds Playhouse, 셰필드 극장(Sheffield Theatres)이 참여 극장들이다.

밤불즈 (Bamboozle)

<https://www.bamboozletheatre.co.uk/>

1994년에 설립된 밤불즈 극단은 중도 및 중증의 학습, 정서, 행동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작품을 만들고 있다.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작품을 주로 만들고 있으며 작품 관람의 경험이 긍정적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

그레이아이 극단 (Graeae Theatre Company)

<http://www.graeae.org/>

1980년에 설립된 그레이아이 극단은 장애인이 주도하지만 다양한 장르의 대중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극단이다. 예술감독 제니 실리는 2012년 런던 장애인 올림픽 개막식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워크숍 및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연의 제작 시작에서부터 음성 해설, 수어 통역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또한, 청각 장애 배우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엑스트라오디너리 바디스 (Extraordinary Bodies)

<http://www.extraordinarybodies.org.uk/>

서커스 비주(Cirque Bijou)와 다이버스 시티와의 파트너십으로 생겨난 엑스트라오디너리 바디스는 전문 서커스 극단으로 큰 규모의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든다. 청각장애를 가진 배우들과 비장애 배우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함께 일하고 있다.

피팅즈 멀티미디어 아트스 (Fittings Multimedia Arts)

<https://www.facebook.com/fittingsmultimediaarts/>

피팅즈 멀티미디어 아트는 영국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대중적인 연극을 제작한다.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주류 예술보다 수준이 낮으며 이슈 중심이라는 예상을 깨고 코미디와 음악처럼 단순 명쾌하고 직접이며 감정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시각과 촉각, 음악, 춤, 신체극, 인형극, 수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기반으로 작품을 만든다.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 (Birds of Paradise Theatre Company)

<https://www.boptheatre.co.uk/>

1993년 자선 단체로 설립된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는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를 동등하게 고용하기 시작한 통합 극단이다. 국내외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수준 높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현재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로버트 소폴리 게일(Robert Siefert Gale)은 영국 장애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엑세스 올 에어리어스 (Access All Areas)

<http://www.accessallareastheatre.org/>

1976년 레인보우 극단(The Rainbow Theatre Group)으로 시작한 엑세스 올 에어리어스는 학습 장애 및 자폐를 가진 배우들과 함께 기존의 틀을 깨는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다. 몰입형 연극 제작과 참여적 작품의 개발을 한다. 배터시 아트 센터(Battersea Arts Centre), 소호 극장(Soho Theatre), 리릭 해머스미스(Lyric Hammersmith) 등 전문 극장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장애를 가진 배우들이 전문 배우로 발돋움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런던에 있는 센트럴 드라마 & 스피치 스쿨(Central School of Speech and Drama)에서 연기 창작 과정(Performance Making Diploma)을 제공하고 있다.

무용단 (Dance Company)

스탑갭 무용단 (Stopgap Dance Company)

<http://www.stopgapdance.com/>

스탑갭 무용단은 안무가 루시 베넷(Lucy Bennett)과 장애/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작품을 만들고 있다. 공연뿐 아니라 출판, 교육, 전문가 훈련 등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 온 통합적인 접근법을 널리 전파하고 있다. 스톱갭의 무용 공연은 '다름'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많은 범위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장애 예술가들의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한다.

칸두코 무용단 (Candoco Dance Company)

<http://www.candoco.co.uk/>

1991년 창단된 칸두코 무용단은 장애/비장애 통합 현대무용단으로 선두적이고 혁신적인 공연을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60개국 이상에서 공연했으며 매년 약 18,000명의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 및 멘토링, 토론 등을 통해 장애 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마크 브루 무용단 (Marc Brew Company)

<http://www.marcbrew.com/>

안무/무용가인 마크 브루는 휠체어를 탄 자신의 경험과 클래식 발레 및 현대 무용에서 쌓아 온 본인의 움직임의 바탕으로 새로운 움직임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페스티벌 (Festival)

다다페스트 (DaDaFest)

<http://www.dadafest.co.uk/>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장애인 주도의 단체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과 평등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해 왔다. 리버풀에 위치하고 있으며 2년마다 수준 높은 장애 예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영 다다페스트(Young DaDaFest)를 통해 그동안 2,000명이 넘는 젊은 장애 예술인들이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 영화, 문학 분야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스카 브라이트 영화제(Oska Bright Film Festival)

<https://oskabright.org/>

2004년 처음 시작되어 2년마다 열리는 발달 장애 영화인들의 영화제이다. 10명의 발달 장애 예술가들이 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 장애 영화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7년 11월에 열렸던 영화제에는 13개국 66개의 영화가 소개되었으며 방문객은 3,600명, 온라인으로는 21만 명이 관람 및 참여했다.

온라인 (Online)

미디어 DAO (Disability Arts Online)

<http://www.disabilityartsonline.org.uk/>

DAO는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장애 예술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수천 개의 기사, 블로그, 뉴스, 리뷰, 인터뷰, 기고글 등 장애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 토론과 공유가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다.

예술가 (Artists)

클레어 커닝햄 (Claire Cunningham)

<http://www.clairecunningham.co.uk/>

클레어 커닝햄은 다원적인 작품을 만들고 공연하는 안무가이자 무용가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장애 예술가이다. 그동안 비장애인 무용수들의 몸에 맞게 발전된 전통적인 무용 기술을 거부하며 신체가 가진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목발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오용하는 것이 그녀의 안무의 일부이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말해줘요>(Give Me A Reason To Live)와 <길잡이 신들>(Guide Gods) 등이 있다.

캐롤린 보우디치 (Caroline Bowditch)

<http://www.carolinebowditch.com/>

호주 출신으로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캐롤린 보우디치는 안무가이자 공연예술가로 다양한 방면에서 일하고 있다. 스웨덴 스카네스 무용단(Skånes Dansteater), 호주의 액세스투아츠(Access2Arts), 아츠 액세스(Arts Access), 호주 예술위원회의 컨설턴트로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프리다와 사랑에 빠지기>(Falling in Love with Frida)가 있다.

로버트 소플리게일 (Robert Softley-Gale)

<http://www.softley.co.uk/>

로버트 소플리게일은 배우이자 작가 그리고 버즈 오브 파라다이스 극단의 예술 감독이기도 하다. 장애인 인권 운동가이기도 한 그는 강연자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02년부터 배우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작으로는 스코틀랜드 국립 극단과 함께 공동 집필하고 연기한 <X라는 소녀>(Girl X)가 있다.

폴 커민스 (Paul Cummins)

<https://www.paulcumminsceramics.com/>

폴 커민스는 도자 공예 작가로 2012 런던 문화 올림픽에 참가한 언리미티드 예술가이기도 하다. 2014년에는 <피가 휩쓸 땅과 붉은 바다>(Blood Swept Lands and Seas of Red)라는 제목의 대형 설치 작품을 런던 타워에서 선보인 바 있다.

레이첼 가즈든 (Rachel Gadsden)

<https://www.rachelgadsden.com/>

주류 예술계와 장애 예술계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는 레이첼 가즈든은 인간의 연약함과 강함을 주제로 페인팅, 드로잉,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레이첼은 지리학적 조건이 인간의 신체와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작품을 많이 선보였다.

예술 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는 영국의 예술 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포괄적인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술 및 문화 단체를 위한 예술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발행한 바 있다. 장애인의 예술 및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간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 기관을 위한 접근성 가이드>(Building Access: A Good Practice Guide for Arts and Cultural Organisations)에서 유용한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건물

새로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개조 또는 확장할 때 공연자와 직원이 사용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접근하는 영역을 포함하여 접근성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은 꼭 고려할 사항들이다.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 건물 외부의 좌석
- 출입구 근처의 평평하고 안전한 하차 지점
- 건물로의 수평/경사로 접근
- 접근이 쉽고 가시성이 높은 출입문 (예를 들어,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 안내견 또는 안내인과 동행하는 장애인 등 대부분의 방문자들에게 편리하다. 자동문을 사용하는 경우, 이동이 느리거나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열려 있어야 한다.)
- 방향 확인이 쉬운 건물 내 설계, 문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가시성 높은 내부 표지판
- 눈에 잘 띄는 안내 데스크 및 정보 숙지가 잘 된 안내 직원,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안내 데스크 및 매표소
- 쉽게 찾을 수 있는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휴식 공간
- 소음을 감소시키는 건물 내 방음 시설
-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카운터, 회의실, 공연 공간의 음향 향상 장비. 특히 바쁜 장소에서는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난청인을 위한 청각감응장치인 인덕션 루프를 설치
- 벽, 바닥, 문, 가구 등을 구별하기 위해 대비가 큰 색상 또는 톤을 사용하여 건물의 여러 영역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내 장식
- 길 찾기, 표지판, 정보 읽기를 돕는 조명
- 신체적, 정서적 편안함을 위한 웰빙에 대한 고려
- 휠체어 사용자, 보행 보조기 사용자, 보조견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좌석 및 동반자와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 배치
- 군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조용한 휴식 공간
- 장애인용 화장실 및 탈의 시설
- 무대 공연자나 직원들을 위한 대기실로의 쉬운 접근 경로

-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탈의실, 업무, 회의, 휴식 공간
- 무대 공연자와 예술가를 위한 장애인 화장실, 탈의실, 대기실, 스튜디오, 무대 시설
- 명확한 안전 대피 절차 및 대피 공간 제공
- 승강기, 음향 개선 장비, 장애인 이동 리프트와 같은 특수 장비들의 유지 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확보
- 방문객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운영 절차
- 직원 교육
- 조직의 웹 사이트를 포함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비치

관객 공간

관객을 위한 공공장소란 예술 기관마다 상이하다. 여기에는 공연을 감상하는 공간, 휴식 공간, 갤러리 및 상점이 포함될 수 있다. 각각의 공간은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바가 달라지지만, 모든 공공 구역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보조건은 주방 또는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을 제외한 건물의 모든 공간(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 및 공공 구역)에 입장할 수 있으며 보조건이 물을 마시거나 뒹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 보조건, 보행 보조차, 보행 보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 휠체어 사용자는 진입구에서 벗어나 함께 온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어야 한다.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모든 사람이 전시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관람객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휠체어 사용자와 안내견 또는 안내인과 함께 온 시각 장애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시품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마련한다. 전시대 가장자리와 전시 케이스, 벽, 바닥 사이의 색상 또는 색조 대비를 주어 관람객이 안전하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전시품이 바닥에서 300mm 이상 위쪽에 위치하게 한다. 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경우, 전시물과 관람객 사이에 통제선이 없다면 벽으로부터 100mm 이상 돌출된 전시품이나 케이스는 가능한 벽에 걸지 않도록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높이에 작품을 전시한다.
- 대화형 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무릎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다.
- 관람객들의 동선과 전시물로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는 곳에 휴식을 위해 짧은 간격으로 좌석을 제공한다.
- 전시 관람 및 이동 시에 적합한 조명을 마련한다.
- 전시물에 대한 설명은 휠체어 사용자가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있어야 한다.
- 시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촉각 투어나, 오디오 가이드와 같은 비시각적 또는 캡션과 같은 텍스트 기반의 설명을 추가한다.
- 표준 문자가 장벽이 될 수 있는 수어 사용자를 위한 비디오 및 전시물에는 수어 캡션을 적용한다.
- 명료한 언어로 표시된 사용이 쉬운 대화형 기기나 그림으로 표현된 지침을 마련한다.

- 전시용 시설물을 배치할 때에는 선호하는 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명확한 게시, 조명, 장식, 색깔 등을 사용하여 관람객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 갤러리 내의 영역 또는 방의 이름을 구분하여 관람객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공연장 (객석 및 강당 포함)

모든 공연 공간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고려 사항은 아니다. 적절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 휠체어 공간을 여러 개 마련한다. 가능한 경우 전체 좌석의 2%를 휠체어석으로 만드는 것을 권장한다.
- 휠체어 사용자는 일반 좌석과 함께 자리해야 하며, 동반자 좌석이 옆에 있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도 선호하는 관람 위치와 다양한 가격의 좌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경사로로 이루어진 모든 층에 휠체어 사용자가 주차할 수 있는 수평 구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이동이 불편한 관객과 보조군이 있는 관객이 입구에서 같은 층 또는 두 계단 이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하고, 보조군이 좌석 옆에 누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관객의 경우, 입구에서 같은 층에 팔걸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통로 쪽 끝 좌석을 제공한다.
- 공연 중 휠체어 및 기타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가까운 보관 장소를 제공한다.
- 인덕션 루프(난청인을 위한 청각감응장치) 또는 적외선 사운드 향상 시스템을 설치한다. 적외선 사운드 향상 시스템은 적외선 신호를 통해 사운드를 전송하고 수신기 헤드셋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만, 음성 해설이나 외국어 해설 등 추가 전송할 수 있다.
- 조명이 꺼졌을 때, 바닥 조명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시각적 방향 정보를 제공한다.
- 관객이 도착하고 떠날 때 적절한 수준의 조명을 제공한다.
- 좌석 번호 및 행 번호는 크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상점, 바, 카페

상점, 바,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한다.

- 매표소, 바, 음식점 등의 매장 카운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를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바닥에서부터 약 760mm 정도 떨어져 있어야 하며, 높이 700mm, 깊이 500mm 정도의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카운터 뒤의 공간은 최소 1,500mm의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 카운터를 둘러싸는 인덕션 루프(난청인을 위한 청각감응장치)를 설치한다.
- 매장 내 통로는 휠체어와 2인용 유모차가 쉽게 통과할 정도로 넓어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긴 통로에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 선반은 바닥으로부터 650mm에서 최대 1,000mm 사이에 설치한다. 매우 높거나 낮은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는 직원의 도움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휠체어 사용자는 테라스 및 층계가 변경되는 모든 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큰 글씨의 메뉴와 다른 대안을 구비하고, 잡기 쉬운 수저 및 빨대, 사용자 편의에 맞는 컵이나 그릇을 구비한다.
- 인터미션의 시작과 종료를 시각적으로도 알린다.

승강기

승강기를 설치할 때 휠체어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휠체어 사용자는 승강기에 들어선 후 반대로 돌아 앞을 보고 나올 수 있어야 하므로 승강기 내에서 휠체어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뿐 아니라 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시각 장애인, 걸으며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 어린이나 유모차를 동반한 부모도 모두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사용한다. 승강기의 수와 크기는 공연장의 수용 인원 수를 반영해야 한다.

플랫폼 리프트는 기존 건물에서 다양한 층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하고 경제적인 수단이다. 모든 사용자는 직접 리프트를 조작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플랫폼 리프트는 손으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작동하므로 특정 장애가 있는 단일 사용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계단용 리프트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전동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플랫폼 리프트



계단형 리프트

예술가 및 직원을 위한 시설

예술가와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영역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무대 뒤, 탈의실, 객석에서 무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무대 왼쪽과 무대 오른쪽에서 무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접근 가능한 경로를 마련한다.
- 무대 뒤편에 무대 왼쪽에서 무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교차 경로를 경사지지 않게 마련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무대에서 객석까지 갈 수 있는 직접 경로를 마련한다.
- 무대 뒤에서 극장 입구 로비까지 갈 수 있는 직접 경로를 마련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 샤워 시설, 탈의실을 갖춘 분장실을 마련한다.
- 무대 근처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탈의실을 마련한다.
- 접근 가능한 모든 화장실 및 샤워실에 비상벨을 설치한다.
- 청각 장애인에게 커튼콜을 알리는 감각적 혹은 시각적 표시기(비디오 링크 또는 진동 호출기 등)를 제공한다.

예술가의 작업 공간

예술가의 스튜디오는 특정 집단의 전용 공간이다. 일부 스튜디오 시설과 모든 공용 공간(주방, 화장실, 회의실)에서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예술가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평지, 경사로, 또는 리프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필요할 때 여러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음료를 마시거나 장애인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마련한다.
-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하고 이동이 쉬운 조명 및 난방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 스튜디오 내 숙박 시설을 계획하는 경우, 휠체어 사용자가 욕실 및 주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세트 또는 소품 제작 등의 특정 내부 활동이나 단체로 실습을 할 경우, 워크숍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한다.

- 수평, 경사로, 리프트를 통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를 설치한다.
- 높이 조절 가능한 책상, 테이블, 의자를 구비한다.
-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이동식 조명 및 난방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
- 참가자들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 및 장비(예: 가위, 절단기, 붓, 페인트 사용을 위한 도구들 등)를 구비한다. 사용자의 특정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 장애인용 도예용 물레 또는 사진 장비와 같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한다.

기술 영역

기술실은 종종 건물 내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지만, 다음 공간들의 접근성을 확인하여 장비에 접근하고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경보 시스템, 난방 제어 장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제어 장치들은 바닥에서 1,000mm 이하, 400mm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 리허설 공간
- 대기실
- 방송, 영화, 조명, 음향 제어실, 음성 해설 부스
- 오케스트라석 및 무대 아래 구역
- 무대 천장 및 조명 작업 통로
- 장비 및 배경막 보관 구역
- 도장실 및 의상실
- 기술실
- 부엌, 바, 카운터 뒤의 공간

음성 해설 및 캡션 등의 지원

객석에 장비를 설치하거나 극장 로비에서 무언가가 펼쳐진다면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을 가진 사람을 위한 캡션이나 시각 장애인 및 부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위한 음성 해설 지원 등 공연의 보조적 지원 또한 그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새로운 장비 구매를 의미할 수도 있다.

- 음성 해설 서비스 제공 업체의 부스를 기술실에 인접하도록 설치할 경우, 무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야 확보, 우수한 음질, 3핀 XLR과 같은 전용선 연결 단자 및 붐 마이크가 부착된 헤드폰 및 음성 해설자를 위한 작은 음향 믹싱 장비 등이 있어야 한다.
- 캡션 장치를 쉽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대 앞쪽에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적외선 음성 증폭기는 적외선이 수신기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관객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적외선 음성 증폭기는 음성 해설 및 방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직원 공간

직원의 접근성은 방문자의 접근성만큼 중요하다. 직원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주방은 물론 사무실, 회의실, 보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방형 사무실은 접근성을 고려한 가구 배치에 있어 더 유연할 수 있지만, 청각 장애를 가진 직원에게는 음향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다. 직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간이 주방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휠체어로 이동하거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회의실에 인덕션 루프를 설치하고 책상에 작업 조명을 지원한다.
- 전기 콘센트는 바닥에서 400mm~1,000mm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 조명 스위치는 바닥에서 1,200mm이하의 높이에 위치하게 하고 벽과 시각적으로 대비되도록 한다.
- 화장실은 이동 거리 40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한다.

화장실 및 휴식 시설

다양한 장애가 있는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에 맞는 접근성이 높은 화장실을 설계한다. 남녀 화장실에는 모두 기저귀 교환대가 있어야 한다. 공간이 충분히 있는 경우,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화장실 및 수유실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은 장애인 화장실 설치 시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다.

- 공공 구역 및 직원 구역 모두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방향 표시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 남성 또는 여성 화장실 내에 위치하기보다는 성이 다른 가족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 바깥에 위치하거나 남녀 공용으로 만들 수 있다.
- 문은 바깥쪽으로 열리도록 한다. 만약 문이 안쪽으로 열린다면 위급 상황에서 문을 들어 올려 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자유 경첩을 이용하여 바깥쪽으로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한다. 문을 안쪽으로 열었을 때에는 화장실 변기가 문에 닿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 사용자의 품위를 지키고 시각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문을 열었을 때 바로 공공 구역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 비상벨을 설치한다.
- 장애인용 화장실이 하나 이상 있는 건물에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고려하여 문을 설치한다.
남성 및 여성 화장실 내에는 보조 레일이 설치된 칸막이 화장실이 최소한 한 개 이상 있어야 하며, 다음을 고려한다.
 - 적합한 보조 레일을 설치한다.
 - 바깥쪽으로 열리는 문을 설치한다.
 - 가능하면 1,200m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한다.

규모가 큰 건물에는 보조 레일이 설치된 소변기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샤워실, 구급실, 침대가 갖추어져 있는 장비 및 물품 보관실도 고려해야 한다. 표준 장애인 화장실은 모든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는다. 가능하면, 특히 규모가 큰 넓은 장소에는 표준 화장실에 탈의 공간을 함께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탈의 공간이 포함된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 때는 다음을 고려한다.



탈의 공간과 칸막이를 갖춘 화장실 © pamis

- 최소 공간 3m x 4m, 천장 높이 2.4m를 확보한다.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성인용 탈의 벤치를 설치한다.
- 변기를 중앙에 배치하고 양쪽으로 공간을 확보한다.
- 유압식 천장 레일 주행 리프트(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동식 리프트)를 설치한다.
- 장애인 및 최대 두 명의 간병인을 위한 탈의실 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다.
- 프라이버시를 위한 스크린 또는 커튼을 마련한다.
- 탈의 벤치를 덮을 수 있는 일회용 종이를 구비한다.
- 대형 일회용 패드를 위한 쓰레기통을 구비한다.
- 미끄럼 방지 바닥을 설치한다.

성별 중립 화장실

최근 많은 예술 단체들이 트랜스젠더 및 이분법적 성에 속하지 않는 사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성별 중립 화장실을 설계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규모가 큰 시설에서는 남성 및 여성 화장실 외에 장애인용 화장실과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적인 성별 중립 화장실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성별 중립 화장실 표지

휴게실

조용한 휴게실은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공황 발작이 있을 경우 진정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거나, 피로가 누적된 경우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휴게실을 제공할 경우, 충분히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하지만 너무 의료적 공간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좋다.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체크리스트

출처: [Ensuring your venues and events are open to all - A brief access guide](#)

인쇄물

1. 정보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언어로 작성한다.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창의적이거나 설명이 필요한 글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글을 흥미로우면서도 접근하기 쉽게 쓰는 것은 가능하다.
3. 보다 복잡한 문서의 경우 읽기 쉬운 버전을 따로 만들 수도 있다. 이 경우, 독자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흥미롭게 만든다. 한 페이지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말고, 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유지한다.
4. 영문 텍스트의 경우 글자 크기 14를 유지한다. (최소 12를 사용한다.) 많은 시각 장애인들과 부분적인 시력 상실이 있는 독자들은 글자 크기 18 이상을 선호한다. 확실치 않은 경우, 직접 물어본다.
5. 길고 연속적인 텍스트에 이탤릭체, 세리프체(자획 끝부분에 돌출선이 있는 글자나 숫자), 필기체, 대문자를 피한다.
6. 색상과 텍스트 간에 최소 25%의 대비를 적용한다.
7.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그라데이션이나 반투명 레이어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지 않는 한 이미지 위에 텍스트를 넣는 것을 피한다.
8. 줄 간격이 적은 문단들은 읽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단락 사이에 공백을 두고 단락을 짧게 유지한다.
9. 빛을 반사하는 광택 용지, 텍스트가 비칠 수 있는 얇은 용지, 텍스트가 안 보일 수 있는 접지는 피한다.
10. PDF 문서는 종종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으므로 시각 장애인 또는 부분적인 시력 상실이 있는 독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 모든 문서는 일반 워드 버전을 함께 제공한다.

포맷의 선택

1. 사람들이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요청 시에 다른 형식으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정보는 다른 형식으로도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요청하세요."처럼 요청하는 사람이 쉽게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어떤 대체 형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파악한다. 전단이나 책자를 전자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인쇄소나 텍스트를 오디오 또는 비디오 파일로 변환할 수 있는 업체를 찾는다. 금액이 너무 비싸다면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고려한다.
3. 번역 비용은 사전에 책정하여 예산을 계획한다. 이러한 대체 형식의 정보를 만들기 위해 일부 예산을 책정한다.

온라인 마케팅

1. 관련 이미지를 사용하고, 각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를 설명하는 글을 덧붙인다. 이렇게 하면 스크린리더 소프트웨어를 통해 시각 장애인과 부분적으로 시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자료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온라인 비디오 자료에는 자막을 포함하거나 내용을 글로 옮긴 원고를 제공한다.
3. 의미 있는 링크를 사용한다. 링크가 웹페이지 어딘가에 따로 표시되어 있다면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했을 경우 어떤 정보로 연결되는지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다음 전시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라고 쓰고 전체 문장을 링크로 만든다. 또한 기존 링크가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 WC3의 웹 접근성 이니셔티브(Web Accessibility Initiative)는 웹 사이트의 접근성 표준으로 A, AA, AAA 등급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www.w3.org/W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